

여사시대

양희은·김일중입니다

1월
2025



MBC 라디오
매일 아침
09:05~11:00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IBK기업은행 화성병점지점 거래고객
(주)대형디앤씨 조부형 대표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IBK기업은행 면목동지점 거래고객
(주)씨앤엑스 이석기 대표



IBK 기업은행

금융으로
만드는 새로운 세상

좋은 직원과 오래오래 함께하고픈 대표님께

인재를 지키기 쉽지 않은 중소기업에게 힘이 되고,
직원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저축.
지금, IBK기업은행에서 시작하세요.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이란?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은 재직자가 월 10만~50만원을 적립하면 중소기업이 재직자 납입금의 20%를 납입하여 만기 시 정기 재직자에게 지급하는 적립식 상품입니다.

오래오래 중소기업에게 든든하게



- 납입금 전액 비용인정 및 세액공제 적용
- 법인기금(순금), 개인기금(원오명) 인정

◀ 기업을 위한 IBK기업은행만의 가지 혜택 확인하러 가기

오래오래 재직자에게 넉넉하게



- 기업지원금 + 우대금리 = 최대 4,029만원 목돈 형성 (원금 3,000만원 기준)
- 만기 시 기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최대 90% 감면

◀ 재직자를 위한 IBK기업은행만의 가지 혜택 확인하러 가기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7641호(2024.12.17) 유흥기간(2025.12.16) · 가입대상: 중소기업·업진흥공관에서 상품가입을 승인한 설명의 개인(외국인 가입가능) (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공제 약관에 따른) · 가입제한: 영업정지, 영업정지, FONE Bank(가인) · 계약기간: 3년제, 5년제(3년제는 추후 판매 예정) · 적립금액: 최소 10만원 이상 월 50만원 이내로 월 1회 납입 가능, 최초 가입한 금액(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공제 약관에 따라 중소기업·업진흥공관에서 승인한 금액)으로 적립 가능, 만기 시 예상수취 이자액, 최고금리연5.0%(적용 시 예상수취 이자액 2,287,500원(세전, 월 납입액 30만원, 계약기간 180개월) 기준), (고액별 납입액, 납입시점, 계약기간 등에 따라 세부사항 변동 가능) · 적용이자율(24.12.17 기준, 세전): 최고이자율연5.0%(기본이자율+우대이자율), 기본이자율: 연3.0%(3년 5년) · 기본이자율은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한 계약 간별 기본이자율 적용 · 가입일 이후 3년 경과 시 1년 단위로 기본이자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우대이자율: 최고 연 2.0%(3000원 이하), 저소득층(금융소득세 연 0.5%p, 카드이용 연 0.5%p) · 이자 및 수익의 지급시기: 만기(입금)일(금)간(화)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 ·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계약에 압류, 가압류, 차관상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연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자세한 문서는 가비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66-2566)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서비스)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서비스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를 바랍니다.

04



04 **미담 쓰담쓰담**
‘새해 달력으로 행복 만들기’ 외

12 **이달의 편지**
‘이런 모임도 있어요’ 외

74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주)대형디앤씨 조부형 대표

76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주)씨엔엑스 이석기 대표

80 **코너 속 편지**
‘연탄집 아들’ 외

110 **양희은의 스튜디오에서**
국물 한 사발

113 **김일중의 스튜디오에서**
여성시대 50주년

74



78



IBK기업은행 협찬의 월간 여성시대는 작지만 큰 감동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월 10일 IBK기업은행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이웃과 함께 보면 감동이 2배로 늘어납니다.

여성시대

발행일 2025년 1월 10일 **발행인** (주)문화방송 대표이사 안형준
등록번호 라 - 5413 **진행** 양희은, 김일중 **프로듀서** 안동진, 김예은
방송 MBC라디오 매일 아침 9:05~11:00 **인터넷 주소** www.imbc.com

방송중 열린전화 02-368-1500 **문의** 02-789-3401 **주소** (03925)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라디오 여성시대
편집·제작 하나로애드컴(02-3443-8005) **표지 작가** 이광 **월간지**(비매품)

전국 주파수 안내(표준FM)

※ 전국 각 지역은 아래 주파수대에서 MBC 라디오 청취가 가능합니다.

서울 95.9 부산 95.9 / 106.5 대구 96.5 광주 93.9 대전 92.5 / 91.3 전주 101.7 / 94.3 창원 98.9
춘천 92.3 / 88.9 청주 107.1 제주 97.9(건월악) / 97.1(삼매봉) 울산 97.5 강릉 96.3 진주 91.1 / 93.5 목포 89.1
여수 100.3 안동 100.1 원주 102.5 / 92.7 충주 96.1 삼척 101.5 / 93.1 포항 100.7 울진 102.7 울릉도 98.5

미담 쓰담쓰담



우리 주변을 찬찬히 둘러보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지요.
 생각만 해도 잔잔한 미소가 떠올러지는 미담이 있으면
 여성시대로 보내주십시오.
 마음속 독소를 빼내고 쓰담쓰담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해 달력으로 행복 만들기

고영화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로

오늘 참으로 소중한 선물을 받았습시다. 바로 달력입니다. 젊은이들은 별로 소중하게 느끼지 않을 수 있고 점점 사라지는 추세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늘 잘 챙겨서 우리 집 1년 행사를 꼼꼼하게 기록해서 거실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곤 하죠.

숫자도 큼직하고 뚜렷하고 음력도 자세하게 적힌 걸로 골라서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가족 생일, 시어른들 기일 등을 제 마음을 담아 나름대로 적어요.

남편 생일에는 큰 별을 그려놓고 ‘대장님 생일’이라고 적어두죠. 남편은 볼 때마다 “내가 대장이라고? 고맙소. 그렇게 불러줘서요” 하고 말합니다. 표정이 싫지는 않아 보입니다.

시부모님 기일에는 ‘존경하는 어르신 기일’이라고 적고, 손자 생일에는 ‘멋진 우리 손자 생일’, 손녀 생일에는 ‘예쁜 우리 공주 생일’ 이렇게 적지요. 손자와 손녀는 안 보는 척하면서 은근히 눈여겨보고는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더라고요.

명절 연휴에는 연휴를 죽 이어 화살표로 연결해 놓고 ‘가족 모두 행복한 날’이라고 적어요. 모두에게 쉬이 필요한 기간이지요.

하나뿐인 여동생 생일에는 ‘태어나줘서 고마운 동생’이라고 적었는데 동생이 보고는 그렇게 행복한 표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언뜻 장난스럽게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 집 달력 앞에서는 무드등 같은 은은한 행복이 켜지고 다들 달력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모습

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꽃도 그려 넣고 별도 그리고 알록달록 색칠도 하지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 집만의 아니 나만의 특색 있는 소중한 메모장으로 만드는 겁니다. 당당이님들도 한번 해 보세요. 별거 아닌 듯한데 행복이 더해집니다.

제 생일날요? 제 생일에는 커다란 하트를 그려 넣고 '가족의 사랑을 받고 싶은 1인'이라고 적었습니다.

- 장남으로 태어나 줘서 감사해.
- 차남, 내 아들이어서 행복해.
- 고마운 내 며느리.

이렇게 몇 글자에 제 마음을 담습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며 '앞으로도 잘살아 보자' 따스한 차 한 잔 앞에 두고 향을 맡으며 제 어깨를 저의 두 손으로 감싸안으며 오늘도 토닥토닥 해봅니다. 제 마음이 넓어지네요. 여성시대 가족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여성시대에서 받은 선한 영향력

서상미 | 광주광역시 남구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니 자원봉사를 해왔던 순간들이 파노라마 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여성살롱 MC 임국희 선생님을 시작으로 손숙 선생님 그리고 지

금의 양희은, 김일중 님께서 든든하게 지켜주신 덕분에 MBC 라디오 장수 프로그램 여성시대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성시대를 진행해 주신 모든 진행자께는 물론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프로그램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께도 이 자리를 통해 ‘왕칭취자’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삶이 버겁고 마음이 답답할 때면 하던 일을 접고 가까운 복지기관이나 시설에 가곤 했습니다. 그곳에 계신 어르신들을 계절과 지역에 상관없이 찾아가서 말벗도 해드리고 소소한 도움의 손길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움을 드린다고 드린 그분들이 오히려 따뜻한 사랑과 소중한 선물들을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갖다주라고 챙겨주시곤 했습니다. 나눔은 언제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 나누고 더 많은 걸 얻게 되는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요양원에 입소하신 어르신과의 대화에서 그분이 살아오신 지난 삶을 들었습니다.

“일찍 혼자되어 자식들과 살아남기 위해 악착같이 살아온 삶들이 다 죄였다는 생각이 들고 내 자식들만 위해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살아온 세월이 한없이 후회스럽고 죄스럽다오.”

그렇게 말씀하고는 눈가를 훔치셨습니다. 그 어르신의 침상은 창가에 자리 잡고 있는데 늘 밖을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그 창으로 요양원 입구가 바라보이는데 아마도 자식들을 기다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은 다들 먹고살기에 바쁘니 그리 자주 오지 않겠지요. 나이 들어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늘 걱정하시는 모습에 제 마음이

다 저리더라고요.

그 어르신께서 또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자동차 운전 조심하고 젊어서 좋은 옷도 입고 먹으며 좋은 일 많이 하소. 내가 기도해 줄게. 또 언제 올 거야?”

언제 올 거냐고 물으며 해맑게 미소 짓는 그 모습이 눈앞에 아롱거리는 날이면 저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어르신을 뵈러 갑니다.

제가 이렇게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은 다 여성시대 덕분입니다. 여성시대를 통하여 방송된 사연들 속에 역경을 이겨내고 용기와 지혜로 가득한 인생 선배님들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고 싶어서 시작한 일입니다. 2007년 5월에 시작해 지금 2024년 12월까지 17년 동안 총 736회 2,852시간을 따뜻한 온기를 나누며 살았습니다.

저 혼자였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성시대는 저에게 커다란 삶의 이정표로 안내해 주었고 늘 응원해 주었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봉사란 ‘돈’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더군요. 마음만 정말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시간을 내어서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누리는 행복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이제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남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살 때 행복은 배가 됩니다. 흔히 성공의 기준으로 넓은 집, 멋진 자동차, 좋은 직장, 높은 학력 등을 꼽지요.

저는 이런 것들을 다 갖추지는 못했지만 더 큰 행복을 날마다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행했던 봉사 시간이 제 인생의 적금 통장임을 소리 내어 자랑하고 싶습니다.

여성시대 사연들을 통해 마음의 심지를 키웠다면 여기에 불을 붙여준 것은 매일 발간되는 월간 여성시대입니다. 매달 기업은행에서 무료로 배포되는데 그 책자를 가져와 감동적인 사연들을 따로 복사해 이웃들과 나누어 읽었습니다. 서로 여성시대 방송 이야기도 하고 사연의 주인공 마음도 헤아려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지역 봉사활동 17년을 돌아보며 저는 제가 마신 ‘공기값’ 정도는 한 것 같아 새삼 뿌듯합니다. 오늘은 커피믹스 2봉지를 넣고 진하게 타서 마시며 “이만하면 잘살았다”고 스스로에게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봉사를 통해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의 희로애락을 알게 됐습니다. 한다고 했지만 더 많이 해주지 못해서 미안할 따름입니다. 그분들의 아픔을 조금 더 덜어드려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아쉽기만 합니다.

오늘 문득 저 자신을 돌아보니 세월이 나와 의논도 하지 않고 70km로 질주하여 제 나이 벌써 70세를 바라보고 있네요. 돌아보면 아쉬움 가득하지만 그래도 여성시대가 있어 위로받는답니다.

여성시대 모토가 ‘삶의 무게 앞에 당당한 사람들’이지요. 양희은 님이 25년 동안 여성시대 안방마님으로 그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양희은 님을 통해 읽히는 사연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 콧날이 시큰, 웃음이 살짝 비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옆에 짝꿍으로 계시는 우리 김일중 님. 솔직하고 밝은 모습 덕분에 소리 내어 웃는 날들이 많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성시대를 빛내어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추운 날씨에 다들 건강하시길 기원해 봅니다.



[4378] 저는 구미에서 살면서 부산-구미 노선을 운전하는 화물차 기사입니다. 여성시대 잘 듣고 있습니다.

[최태철] 저는 출장이 잦은 여성시대 '2대째 당당'입니다. 오전에 운전할 일이 있으면 항상 여성시대를 듣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 차에서 여성시대를 자주 들어서인지 왠지 친숙함이 느껴지는 거 같아요.

[3340] 택시 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의 상냥한 말 한마디에 웃기도 하고 손님들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기도 합니다. 살기가 점점 딱딱해지면서 사람들도 더 예민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항상 여성시대 잘 듣고 있습니다.



[5007] 저는 86년도에 졸업하여 이제껏 직장 생활을 하며 열심히 살아온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얼마 전 회사를 그만두고 쉬고 있습니다. 얼마 만에 휴식인지 당분간은 몸에 충전하려고 합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직장인 여러분 늘 몸 건강 지키면서 일해 주세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3473] 저는 대기업에 다니다 4년 전에 그만두고 1년 전부터 딸기 농사를 시작한 늘봄야빠입니다. 몇 년간 좌충우돌 해마다 시작한 딸기 농사, 지금은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생방송 중 도착한 문자 모음입니다.



- | | | | |
|----|------------|----|----------------|
| 12 | 이런 모임도 있어요 | 36 | 지역의 축제장 호박당구장 |
| 16 | 청년 농부의 첫걸음 | 40 | 어느 멋진 날에 |
| 20 | 계란 한 판의 걱정 | 44 | 늘 제자리로 돌아오신 엄마 |
| 23 | 카드 없는 세상 | 47 | 난 너무 대충 사나? |
| 25 | 불청객 루게릭병 | 51 | 어머니의 눈물 |
| 28 | 우리들의 블루스 | 56 | 묵은쌀 드립니다 |
| 32 | 베폴다의 의미 | 60 | 사회활동이 보름 남은 청년 |



Letter 01

이런 모임도 있어요

정재희 |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제 딸이 2014년 3월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토요일에 과학 강의를 신청해서 들었습니다. 그때 딸 친구들 엄마들과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등나무 아래에서 몇몇 엄마들이 가져온 커피를 종이컵에 나눠 마시며 아이들을 기다리는 정도의 짧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수업을 마치는 날, 그해 11월 25일에 엄마들끼리 모임을 갖자는 제안이 나왔고 이에 여덟 명이 동의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제일 연장자가 회장, 막내가 총무를 하기로 임원진이 쉽게 결정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환상의 듀엣, 엄지척입니다. 모임 횟수는 상황에 따라 매달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코로나 이후에는 석 달에 한 번 등 유동적으로 탄력성 있게 조절했습니다.

- 첫째, 아이들 성적은 묻지 않는다.



- 둘째,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이나 과외를 물어보지 않는다.
- 셋째, 아빠·엄마의 직업을 묻지 않는다.
- 넷째, 자신의 잘난 학력은 말하지 않는다.
- 다섯째, 우리 모임 외의 아이들이나 그 부모에 대해 험담하지 않는다.

- 여섯째, 선생님에 대해서는 좋은 말만 한다.
- 일곱째, 시댁 험담을 하지 않는다.
- 여덟째, 모임 아이들이 다 잘 되길 기원하고 좋은 일에 축하해준다.
- 아홉째, 애경사는 알리고 참석한다.
- 열째, 회비는 2만 원으로 동결한다.

우리 모임에 사실 이런 십계명은 없었습니다. 애초에 없어요. 그러나 암묵적으로 이런 보이지 않고 정하지 않은 십계명을 잘 지키며 지내왔기에 모임이 10년 동안이나 '아름답게' 이어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만나서 하는 일도 심플, 모범적이었습니다. 일하는 분이 있어 오후 6시쯤 만나 맥주 한 잔 곁들인 저녁 식사 먹고, 2차로 차 마시고, 9시에서 10시면 헤어집니다. 술을 잘 마시지 못하니까 이제는 밥 먹고 차 마시는 게 전부입니다.

너무 드라이한가요? 그런데 저희는 정말 만족합니다. 화기애애하게 든요. 살아가는 일상 이야기, 마치 여성시대 사연들처럼 울고 웃기는 평범하고 때론 유익한 말로 몇 시간이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2만 원 회비로 10년째 운영이 되는 건 매직입니다. 8명 중 1명만 한 자녀이고 7명은 자녀가 둘씩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모두 15명이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우리 아이들이 유명 대학부터 전문대학까지 모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가벼운 압박에 자녀를 유명 대학에 보낸 엄마가 흔쾌히 한 톱씩 내서 회비가 굳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 아이들의 형제들이 일이 잘 풀리면 그 엄마가 자진해서 한 톱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진학이나 입사에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더불어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을 모았고 그 정이 쌓여왔습니다. 그런 선한 사람들과 그 마음이 모여서 지금 15명의 아이는 자신들

이 원하는 일을 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팔색조처럼 여덟 엄마의 개성이 각각 다르지만 ‘우리 아이만 잘 되면 된다는’ 이기적인 엄마의 마음이 아닌 모두가 잘 되길 바라는 ‘찐 엄마의 마음’들이기에 예까지 무탈하게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입니다만 모임이 오래 가려면 복잡하지 않게 생각하고 서로 위하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또 술이 없어야 언행의 실수도 없지 않을까 느꼈습니다.

만남 10주년을 맞아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모임의 언니, 동생들께 감사하고 자랑도 하고 싶어서 편지 씁니다. 20년째, 30년째에도 널리 알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네 엄마’ 대신 ‘이름’과 장점을 소개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 첫째, 만이 회장답게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어 주는 언니 유혜원.
- 둘째, 몸이 종합병원이면서도 봉사를 꾸준히 하는 존경스러운 언니 홍은성.
- 셋째, 차분하게 정보 알려주고 정돈 시켜주는 이경남.
- 넷째, 많이많이 예쁘고 웃음도 많이 주는 김경희.
- 다섯째, 머느리를 봤으면서도 소녀처럼 순박하고 순수한 김미성.
- 여섯째, 유쾌한 말솜씨로 사람들 마음을 띄워주는 차지은.
- 일곱째, 얼굴만 봐도 기분 좋게 해주는 화사하고 이쁜 총무 김선희.

이 글을 쓰는 저는 나이 서열상 셋째인 정재희고요, 제 입으로 제 자랑을요? 못하죠! 이해해 주세요. 아, 잘하는 거 하나 있어요. 늘 “사랑해~”라고 말하는 ‘사랑동이’가 접니다.

이상 10주년을 맞은 ‘남달라’ 모임 소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축하도 부탁드립니다!

Letter 02

청년 농부의 첫걸음

애청자

저는 재작년에 충남 금산에서 농사를 시작한 20대 청년 농부입니다. 6년간의 회사 생활을 접고 자연 속에서 땅을 일구며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농업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곳저곳 땅을 알아보다 1500평 정도 되는 밭에 임대를 구했고 주변 분들이 처음 시작하기에 좋은 작물이라며 추천해 주셔서 깻잎과 고추 농사를 시작했죠.

처음에는 모든 게 막막하고 두려웠지만 그동안 배운 지식과 주변 어르신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하나씩 배워가며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농사를 시작할 때만 해도 모든 것이 새롭고 설레었습니다. 밭을 갈고 작물을 심고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바로 내가 찾던 길이구나’라는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비록 작은 농장이었지만

제 손으로 땀 흘리며 농작물을 가꾸는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흙냄새를 맡으며 하루하루 정성을 쏟는 일상이 도시 생활과는 완전히 달랐고 그 속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어느덧 7월이 되어 저는 첫 수확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9일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장맛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빗줄기는 점점 거세졌고 하늘은 연신 어두워지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비는 멈출 기미 없이 계속 쏟아졌고 저는 깻잎과 고추가 다 쓸려 내려가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빗소리는 마치 천둥 같은 굉음으로 변해가며 한밤중을 뒤흔들었고 새벽 3시경 수습 통의 재난 문자가 쉬지 않고 도착하더라고요. 집근처 하천이 홍수 경보로 바뀌었고 범람한 강물은 마당으로 흘러들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과 저는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휴대폰만 급히 챙겨 집에서 탈출을 시도했고 몇 분 지나지 않아 울타리가 흔들릴 정도로 물이 쏟아져 들어오더니 허벅지까지 물이 차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필사적으로 도망쳐 집 근처 고가로 도로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도로 위 버스정류장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을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곧 해가 뜨고 아침 6시가 되니 긴급 복구 차들과 소방, 경찰 인력들이 통제를 위해 나와 계셨습니다. 점심이 지나 오후쯤 되었을 때는 다행히 비가 잦아들어 길이 보이기 시작했고 집과 농장에 가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농장이 거대한 호수처럼 변

해 있었고 집으로 들어오는 물길은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밤새 쏟아진 폭우로 하우스는 주저앉았고 흙탕물 속에 갇힌 작물들이 힘없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제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첫 수확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가꿔왔던 농작물들이 순식간에 물속에 잠겨버리다니 이걸 정말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빗물은 농장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저의 모든 기대와 꿈을 쓸어갔습니다.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작물들이 무참히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새벽부터 날이 밝을 때까지 퍼붓던 비는 끊임없이 제 마음속 불안을 키우더니 마침내 모든 걸 삼켜버린 듯했습니다.

처음 농사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런 재난이 닥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그저 땅을 일구면 작물이 자라고 자연히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농부의 길은 자연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농사는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자연의 힘을 받아들이고 그 흐름에 순응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 장마를 통해 절실히 느꼈습니다.

하지만 좌절도 잠시 생각해 보면 다 자연의 힘으로 하는 일이니 땅이 물에 잠기고 하우스 네 동 중에 두 동이 다 무너졌어도 시간이 지나면 별로 땅이 마르고 그 위에 새로운 씨앗을 심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의지를 다지며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돌아보면 이 시련이 있어 다시금 강해진 것 같아요. 몇 달의 시간이 지난 지금은 많은 노력과 도움으로 복구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집 내부의 가구와 집기류는 아쉽지만 쓸 수 없어 바꾸었고 기존 농작물은 갈아엎고 새로 흙을 받아 노지 그러니까 하우스가 없는 땅에는 김장과 관련된 작물을 새로 심었습니다. 배추와 무를 재배 중인데 잘 기



르다가 자본이 새로 생기면 더 좋은 땅을 찾아 이사를 갈 계획도 세웠습니다.

강물은 언제 그랬냐는 듯 평화롭게 흐르고 있네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 중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계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자연의 순환 속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농부로서 저는 매일 희망을 심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희망이 열매 맺을 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야겠습니다.

Letter 03

계란 한 판의 걱정

애청자

저는 올해 계란 한 판이 되는 여성시대 애청자입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냐고요? 백수입니다. 정말 암담하죠. 이제 서른! 계란 한 판인데 아직 취준생입니다. 어쩌다 제가 이렇게 됐는지 너무너무 속상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사실 저는 8년 전 여성시대에 사연을 보내서 2017년 8월에 방송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때는 공시생 시절이라 천안에서 노량진으로 통학하는 공시생의 하루를 담은 사연이었는데 이제는 계란 한 판의 걱정을 끄적이고자 합니다.

그때 공무원 시험 준비했던 건 와르르 무너졌어요. 공무원 시험만 대학생 때 준비했던 탓에 졸업 때까지 아무것도 남은 것도 쌓은 경험도 없었죠. 그런데 옆친 데 덮친 격이라고 딱 제가 졸업하는 해에 코로나19가 터졌고 취업 시장은 거의 1~2년 동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아~ IMF

때 취업이 힘들었다던데 딱 이랬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자격증 준비를 하며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했고 좋은 기회가 생겨 계약직이지만 대학교에서 행정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서는 정규직 자리를 원하셨고 우연히 좋은 기회가 생겨 시 교육청에서 정규 채용하는 교육공무직 시험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필기시험 합격 날까지도 지원했다는 사실을 비밀로 했거든요. 혹시라도 떨어지면 속상하실까 봐요. 그러나 최종 면접까지 합격했고 집 앞 학교로 발령받아 갖고 있던 출퇴근용 차도 바로 팔았어요. 정말 저희 부모님은 동네방네 자랑하실 만큼 더할 나위 없이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보름쯤 근무를 했을까요. 도저히 못 다니겠더라고요. 나이가 제가 비교적 어린 탓인지 동료분들의 보이지 않는 텃세에 버티기가 쉽지 않았고 업무에 대한 부담감과 저 혼자 섬처럼 동등 떠 있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매일 아침 출근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가위눌린 적이 없는 제가 가위에 눌리고 근무시간에 헛구역질도 나고 너무 힘든 나날들을 보내다 결국 퇴사를 결정했어요. 물론 부모님의 반대가 엄청 심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8월 초에 입사해서 그달 말에 사직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모든 순간을 제가 부정하게 되더라고요. '괜히 지원했나? 그냥 대학교 다닐 걸...' 그런 생각이 하루에도 수백 번 들었고 한번 지원이나 해보자고 다짐했던 저 자신이 너무 싫어지더라고요. 이후 지금까지 아직 취업 준비 중입니다. 정말 살면서 이렇게까지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나날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만큼이나 속상한 건 부모님이시죠.

이제 계란 한 판이 된 저. 아침에 조카 등교시키고 밀린 집안일 하는

것이 그나마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지요. 청소기 돌리고 빨래 돌리고 설거지하고 매일 루틴처럼 하는 구인 공고 사이트를 보고 지원하기입니다.

나이 계란 한 판이 문제일까요? 취업이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요새는 산책도 안 하게 됩니다. 산책하면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만 봐도 부럽더라고요. 나는 왜 집에서 이려고 있나, 뭐가 문제인가. 제 친구들은 모두 공무원이 되어 멋진 20대의 마지막을 보내는데 저만 집에서 이렇게 있으니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최근에 저희 엄마가 그러셨어요.

“우리 딸은 학생 때도 속 썩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다 커서 이렇게 속을 썩일까?”

또 지금 제가 남자친구와 8년째 연애 중인데 남자친구는 대학생 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어느 날은 또 엄마가 이러더라고요.

“네가 OO랑 만나는 것도 민폐야. 공무원 남자친구 발목 잡지 말고 네가 놔줘. 나이가 이제 서른인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OO이한테 창피 하지도 미안하지도 않니?”

뭐라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얘기 들은 날은 하루 종일 평평 울기만 했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모든 감정이 휘몰아치는 것 같아요.

저는 매년 저 자신과 약속하는 게 있어요. 제 생일이 12월 16일인데 매년 하는 다짐이 ‘제발 올해 내 생일 때는 일하고 있자’거든요. 과연 저의 다짐이 이루어질까요? 지원한 곳에 취업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계란 한 판, 이제는 정말 너무 늦은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Letter 04

카드 없는 세상

조진기 |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

카드 명세서를 보고 저와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와~ 이게 뭐지? 우리가 쓴 거 맞나? 혹시 카드 도둑맞은 적이 있었나? 이거 무언가 잘못된 거 같은데?’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충동구매나 과소비를 하지 않고 나름 알뜰하게 소비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금액을 보고 ‘어디에다 이렇게 썼나?’ 하면서 훑어보게 되더군요. 알게 모르게 자질자질하게 커피 마시고 간식 사 먹고 티끌 모아서 태산이라고 조금씩 모으면 목돈이 되듯 조금씩 쓰다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 어마무시한 명세서를 맞이하게 된 거였어요.

돈 잡아먹는 카드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에 저와 아내는 큰 결심을 하고 카드를 없애 보기로 했어요. 신용카드를 쓰면서 할인받기 위해 필요치 않은 소비를 하게 될 때도 있었거든요. 현금 생활을 해보자. 그러면 쓸데없는 소비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카드 생활에 익숙했던 저희 부부는 처음에 정말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그냥 카드 다시 사용할까? 너무 불편하다.' 이런 생각을 시시때때로 했습니다. 뭔가 모르게 소비할 때마다 압박감이 들고 힘들어서 몇 번이고 '포기할까? 좀 더 버티어볼까? 이 고비만 넘기면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다 보니 한 달이 지났어요.

체크카드를 쓰면서 돈이 빠져나가는 게 보이니까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아껴 쓰게 되었습니다. 커피 하루에 두세 잔 마실 걸 한 잔으로 줄이고, 물건을 살 때 '정말 이게 필요한 건가?' '할인한다고 해서 쟁여놓기 위해 사는 게 맞는 걸까?' 스스로에게 의문을 제기하면서 소비할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냉장고 파먹기를 함으로써 외식 비용도 많이 줄이고 기간이 지나서 버리는 음식물쓰레기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가게부를 아내와 함께 쓰고 공유하면서 소비하다 보니 정말 많이 아끼게 되었어요. 저희도 깜짝 놀랐다니깐요. 아껴 쓴 보람이 있구나, 내심 흐뭇하기까지 했어요.

카드 쓸 때는 쉽게 결제하다보니 월급날이 가까워질 때쯤에는 쓰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쓰기도 했어요. 돈 없어서 아무것도 못 사는 일이 생기다니 말도 안 되는 상황에 헛웃음이 나오기도 했어요. 카드 없는 세상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다 보니 뭐 나름 견딜만한 거 같아요.

카드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부부 앞으로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돈 모아서 내 집 마련 빨리하고 싶네요. 이런 부모를 본받아서 우리 아들들도 현명한 소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가 본의 아니게 자린고비 구두쇠가 되지는 않을까 살짝 걱정되기도 하네요.

Letter 05

불청객 루게릭병

황태양 | 충북 괴산군 칠성면

이 글은 루게릭병 환자로 거동과 말이 힘들어서 안구마우스로 소통하고 있는 저의 어머니 윤종애 님이 직접 안구마우스로 작성하신 글을 아들인 제가 옮겨 적었습니다.

현재 어머니는 외상 환자로 살고 계시지만 몸이 나빠지기 전에는 글도 많이 쓰셨고 루게릭병 환자 커뮤니티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등 우울감을 없애기 위해 많이 노력하셨어요. 이 글이 다른 루게릭병 환우분들께도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로 가는 길목에서 인사드립니다. 내장산 단풍이 예쁘게 물들었다 해도 여행 갈 엄두를 못 내고 한 달에 한 번 맞는 루게릭병 지연제인 라디컷을 맞으려고 보따리를 싸입니다.

3년 전엔 지금보다는 몸 상태가 좋아서 휠체어를 타고 다녔어요. 큰

기대를 안고 줄기세포 치료를 한 세포에 3천만 원씩 두 세트를 하면서 동시에 라디컷 주사를 맞느라 6시간 동안 꼼짝도 못 하고 그저 ‘내 병이 더 이상 진행되지 말고 여기서 멈추게 해달라’고 나의 간절함이 하늘에 닿길 바라며 기도했더랬죠.

손이 움직일 수 있던 때에는 3년간 병의 원인도 치료제도 몰랐지만 알곳은 이 병의 진행을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글자를 공책에 하루에 100번씩 썼습니다.

오른손으로 쓰다가 손에 힘이 빠져서 왼손으로 썼는데 왼손마저 힘이 빠지면서 목 근육까지 나빠져서 나의 ‘글쓰기 기도’는 중단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환우들을 만나게 되고 전동 휠체어 부대의 일원이 되어 햇살이 따랑따랑한 날에는 대학병원 1층 빵 가게 뒤편에서 10대가 넘는 휠체어 부대가 줄 맞춰 서서 다 같이 햇살 샤워를 받으며 수다 삼매경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날이 그리워지네요.

재작년 여름부터는 밥이 잘 안 넘어가서 씹음하다가 죽을 넘기는 것도 힘들어서 결국 ‘위루술’로 식사와 약을 뱃줄로 먹게 되었습니다.

작년 2월에는 열이 너무 나서 119를 타고 병원에 갔는데 119대원이 찾아갈 병원에 연락하니까 다들 루게릭병 환자라서 부담스러운지 반겨주질 않더군요. 다행히 한 병원에서 받아주어 열 내리는 주사를 맞고 집에 오는데 나는 어디서든 환영받지 못하는 불청객이구나 싶었어요.

119대원분이 아무래도 폐렴 같으니 큰 병원에 가보라 해서 다음날 보따리 챙겨서 늘 다니던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으니 폐렴이 맞았습니다.

바로 입원했는데 치료를 받던 도중 세 번째 숨 정지가 와서 기도 절개를 하고 중환자실에서 눈을 떴는데 주치의 선생님이 전에도 숨 정

지가 있었으니 또 발생할 확률이 있다고 ‘목관 수술을 해야 한다, 남편과 아드님이 사인을 하고 가셨다’며 환자인 저만 승인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핑계로 결국 별로 하고 싶지 않았던 목관 수술을 하고 현재는 외상 환자로 살고 있어요.

몇 달 전에는 퇴원하면서 집에 오는 길에 익숙한 길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그건 친정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잠시 옆길로 새서 친정에 들리자고 말하고 싶었는데 목관을 해서 말 못 하는 내 모습에 끼이끼이 바보처럼 눈물만 흘렸네요.

루게릭병 치료제가 언제쯤 나올지 몰라서 우리 환우들이 자주 하는 말은 ‘잘 유지하세요~’랍니다. 생쥐가 고구마를 야금야금 갉아 먹듯이 루게릭병도 내 몸의 근육을 허락도 없이 조금씩 빼가는 병이거든요.

또다시 새봄이 와서 연두색으로 나뭇가지가 물들 때쯤 내 몸에도 근육들이 다시 생겨 주기를 아니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뭐든 삼세번인가 봐요. 안구마우스로 글을 쓰고 있는데 눈에 쉬는 틈을 주지 않아서 별을 받은 건지 다 써가는 글을 실수로 지우기를 눌러 두 번이나 날리고 세 번째에 겨우 완성했네요. 안구마우스가 있기에 세상과 소통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Letter 06

우리들의 블루스

이용호 | 경남 사천시

골 목 사이로 주홍빛 노을이 이부자리를 펴고 있었다. 하얀 파도는 꼭 객지에서 돌아오는 자식들처럼 몽돌 사이로 스며들었고 우리는 그리스 산토리니를 닮은 좁고 긴 흰여울 골목을 걸으며 부지런히 사진을 찍었다. 서로의 모습을 찍어주기도 하고, 돌씩 붙여 서서 손하트도 만들다가 요즘 MZ세대에서 유행한다는 ‘뒷모습 샷’을 찍으며 흥과 감성을 표출하고 있었는데 그게 좀 유별났는지 젊은이들이 힐끗힐끗 훑쳐본다. 그게 무슨 대수라! 남자 일곱 명 그것도 육십을 전후한 우리는 대한민국의 아저씨가 아닌가!

2015년부터 시작된 우리들의 블루스는 19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8년 가난하고 배움도 두텁지 못했던 그 시절. 우연히 직업훈련원에 모여든 우리는 2년의 교육 과정을 마치고 각자 취업에 성공하면서 뽕뽕이 흩어졌다.

그러다 교류를 간간히 이어오던 몇몇이 그때의 추억이 그림고 소중한 하니 매년 봄가을마다 회원들의 연고지를 돌며 수학여행을 떠나자고 제안한 것이다. 갑작스런 제안으로 시작된 수학여행은 2015년부터 지금까지 벌써 9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여행지는 부산이었다. 이 모임에 한 번 빠지면 다들 반년은 지나야 보기에 모두 거르지 않고 와주는 마음이 애뜻하고 고마웠다. 부산역에 도착하니 서울, 원주, 대전, 대구, 통영, 경주에서 서둘러 온 형님 동생들이 이산가족 상봉하듯 반겨주었다.

새벽같이 달려온 그리움이 배꼽시계를 보채는 통에 가장 먼저 식당으로 향했다. 그새 총무는 먼저 가서 순번을 받아 대기 중이었다.

첫 메뉴는 부산의 맛, 돼지국밥이었다. 40여 명이 긴 줄을 서있는 가게에서 겨우 자리를 잡고 방금 썰어 나온 수육을 한 점 먹으니 입안에서 살살 녹는 게 과연 소문 그대로다. 뒤이어 나온 맑은 돼지국밥에 정구지 그러니까 부추 무침을 섞어 밥을 말아 깍두기랑 한 입 삼키니 오장육부가 목구멍까지 마중 나와 빨아들인다. 눈으로만 인사를 주고받으며 우리는 정신없이 속을 채우고 첫 여행지 송도로 향했다.

15년 만에 와본 송도는 상전벽해를 넘어 마천루 사이로 케이블카가 우주선처럼 오가는 행성 같았다. 케이블카에 옹기종기 몸을 싣고 바다를 건너면서도 우리는 연방 사진을 찍고 수다를 떨며 수학여행의 재미에 빠져들고 있었다. 전망대에 설치된 빨간 모형 비행기에서는 우리의 만남이 오래오래 비행되도록 기원한다며 모두 파이팅을 외쳤다.

오후의 산 그림자 위로 솟털 같은 구름이 눈 내리듯 흩날리는 감천 문화마을은 형형색색으로 치장한 집들이 미니어처 장난감처럼 들어앉아 있었다.

작게 들어찬 골목을 달려 노을을 잡고선 영도 흰여울마을에 올라

섰다. 이곳은 봉래산. 맑은물이 마치 흰 눈처럼 바다로 흘러내린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지만 전쟁의 아픈 역사를 품은 민초들의 삶이 켜켜이 쌓인 곳이기도 해 짝한 느낌이 들었다.

노릇노릇 석양처럼 30여년의 세월을 맛있게 익혀온 우리도 어느새 흰머리가 파도처럼 밀려와 흰여울이 되었으니 괜히 눈시울이 붉어진다.

여행의 묘미는 음식이고 그것은 누구와 먹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법이다. 부산역 앞 맛집거리에서 우리는 매콤한 꼬막장어 안주를 앞에 놓고 추억과 살아온 이야기로 밤을 채웠다.

그 시절 우리는 약속이나 한 듯 가난했다. 밖에선 88올림픽 굴렁쇠가 경쾌하게 굴러가고 있었지만 우리는 우리만의 올림픽을 위해 낮밤 없이 공부에 매진한 덕에 이제는 각자의 삶 속에서 금메달을 딴 영웅이 되었다.

대구 형은 자영업을 이어오다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지금은 대학에서 강의에 열중이다. 서울 동생은 군무원으로 절제된 생활과 철학적 삶을 살고 있는 믿음직한 총무이고, 부산 동생은 든직한 체구로 지하철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공무원으로 장기 근속중인 창원 형님은 언제 봐도 조용하고 예의 바른 모범생이며, 원주 동생은 밤낮없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이자 남는 시간에는 개인 문집을 발간한 재야의 작가다.

경주 형은 그 작은 체구에도 히말라야를 비롯한 오지를 탐험하는 여행자이자 기술자이고, 색소폰을 즐겨 부는 울산 동생은 국가 기간 산업 역군으로서 나라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통영 토박이 동생은 시인이자 수필가, 목회자로서 일인 다역을 소화하며 맹활약하고 있다. 최근엔 문학평론가로 등단해 우리들 모임 때마다 미니 문학 강좌를 해주는 고마운 동생이다.

울진이 고향인 나는 벌써 35년째 이곳 사천에서 객지밥을 먹으며 주중에는 직장에서, 주말에는 지리산에서 열정과 건강을 가꾸고 있다.

우리는 봄에는 대구에서 모이고 가을에는 대마도 여행을 가기로 결정하였다. 이참에 일 년에 한 번이라도 소식지를 만들어보자는 의견에도 모두 동의했다.

기분 좋게 취기가 오른 우리는 7080을 시작으로 트로트와 찬송가 심지어 만화영화 주제가인 은하철도999까지 부르며 한바탕 야단법석을 떨었다.

우리는 환갑을 넘겼거나 코앞에 둔 나이로 자식들은 모두 객지로 보내고 각자 퇴직을 준비 중이다. 30년 이상 저마다의 터전에서 세월과 맞바꾼 시간이 역사가 되고 그리움이 되고 영웅이 되었지만 조여오는 시간은 어쩔 수 없다.

묵은 추억이어도 매년 봄가을마다 지난 시간을 꺼내 여행길 헛살에 말리고 수다로 기름 치면서 비디오테이프처럼 인생을 다시 돌려보는 재미를 나누고 싶다며 다들 눈시울을 붉혔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 아니겠는가. 지금까지 참 잘 견뎌왔으니 앞으로 노련하게 익어가자고 다짐하며 우리는 비가 오후를 적시기 시작한 부산역에서 신년 봄의 대구 여행을 기다리며 작별했다. 몇 번이고 돌아서서 손을 흔드는 발걸음 속에 우리들의 블루스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모두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보도록 합시다.

Letter 07

베풀다의 의미

애청자

베 풀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았다. 익히 아는 뜻이었다. 그것보다 눈에 들어온 ‘베풀다’의 유의어가 흥미로웠다. 벌이다, 열다, 주다, 차리다, 돕다, 도와주다가 올라가 있다. 남에게 잔치를 벌이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고, 길고양이 밥을 차려주고, 동료의 일을 도와줄 때 쓰인다. 이 모든 베풀다는 의미는 남을 주인공으로 앉히는 단어다.

나는 일 년 동안 중고 거래로 알게 된 아이를 위해 매달 십만 원을 자동이체로 보내고 있다. 내가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아이가 너무 여유가 없어 보여서다. 처음에는 아이의 사정을 듣고 눈물을 푹푹 흘리며 가슴 아파했다. 이에 남편도 마음이 동하여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한 달에 나가야 하는 이자며 집이랑 가게 월세도 만만찮지만 딱 1년만 도와주기로 했다.

이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스무 살 아이가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게 하고 싶었다. 누군가 자기를 위해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살아가는 내내 얼마나 든든하겠냐고 남편이 아이와 첫 대면에서 말했다. 우리가 큰 힘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의논할 일에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어른이 되어주고 싶다고 아이에게 전했다.

그리 시작했지만 나는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복잡해졌다. 월 십만 원이면 마트에서 할인 코너를 기웃대지 않아도 될지 모른다. 우리 집 삼남매가 보면 마음이 불편할까. 집에 들어가기 전 할인 스티커를 제거하거나 얼른 정리해서 냉장고에 집어넣을 필요도 없다. 엄마는 만날 저런 먹거리만 사느냐 말하지도 않는데 지레짐작 감추는 게 버릇이 되었다.

떨이 제품을 사려고 운동한다는 핑계로 한밤중 마트 문 닫기 전에 일부러 장을 보러 간다. 어찌다가 생선이나 돼지고기가 싸게 나오면 ‘어머, 이건 사야 해’하며 몇 개씩 집어 오기에 돌아오는 길이 고달프기 일쑤다. 그리 날라도 얼마 안 가서 동이 난다. 한창 먹을 아이 셋에 가게 밥까지 감당하느라 날마다 식자재 전쟁이다.

어쩌면 내가 한 달 동안 그렇게 지지리 공상으로 아낀 돈이 그 십만 원일지 모른다. 그리 아껴서 그 아이에게 송금한다. 자동이체를 걸면서 보내는 사람 이름에 ‘밥은 꼭 챙겨 먹어’로 표기한다. 요즘 아이들 말로 나는 ‘밥에 진심인 사람’이다.

한때는 예닐곱 가지 반찬을 만들어 아이 집 문 앞에 두고 오기도 했다. 입안이 헐어서 밥을 제대로 못 먹는다고 했을 때 상처에 자극이 되지 않는 순한 삼계탕이나 전복죽, 맑은 동태탕 같은 음식을 놓고 오기도 했다.

아이가 이사한 적이 있다. 이사 전날, 남편은 청소기에 세제까지 준

비해 집 청소를 해주고 정수기랑 비데를 설치해 줬다. 다음 날 이삿집도 우리 차로 날라줬다. 나보다 남편이 더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미안할 지경이었다. 오전에 일하고 오후를 통째로 이사에 매달렸다.

저녁에 돌아온 남편은 허리가 아프다며 몹시 지쳐있었다. 대충을 모르는 성격은 이럴 때도 예외가 아니었다.

나는 아이에게 바라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나조차 모르는 바람이 있었다. 내가 준 것에 대한 적절한 반응. 그것이 내가 돌려받고 싶은 바람이었다. 송금을 받았으면 잘 쓰겠다는 문자 정도, 음식을 받았으면 맛이 좋다는 인사치레 정도면 충분했다. 아이는 두어 달 그리하더니 그 후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매달 돈은 빠져나가기만 했다.

남편은 그런 것에 연연하는 나를 이상하게 봤다. 우리가 송금하기로 약조했으면 우리의 약속만 이행하면 족하단다. “당신은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고 싶어서 시작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런 인사를 기대한 건 아니지만 이런 서운함을 갖는 게 속물일까. 그런 마음마저 내려놓을 만큼 나는 인격의 완성도가 높지 않다.

달리 생각하면 아이가 고마움을 드러내는 걸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리 생각하니 짊어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 고민이 되었다. 가정교육이라는 것을 도통 받아보지 않았을 테니 괜히 남들에게 버릇없는 아이에서 이제 경우 없는 어른으로 굳어지면 안 되지 않나? 싶기도 했다. 나의 섭섭함은 둘째 문제고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걸 놓칠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남편은 그것조차도 포기하라고 했다. 겨우 돈 몇 푼 쥐여 주며 어른 행세랍시고 사생활에 관여하는 건 월권이라고. 어차피 싫은 소리 하는 건 내 체질에도 맞지 않아 접어두기로 했다.

더 솔직히 진심으로 아이에게 애정이 있다면 조언을 할 터인데 역시 그 정도가 아닌 게 분명히 드러나 씩씩하다. 이번 일로 나는 꽤 많은 나도 모르는 나를 알아버려 당혹스럽다.

다음 달이면 약속한 일 년의 마지막 달이다. 남편은 첫날에 그랬듯이 가게로 오라고 해서 밥을 차려주고 비싼 선물 하나를 주자고 한다. 마지막은 능히 그리해야 한단다. 남편의 마음 씩씩이가 참 존경스럽다. 물론 밥을 차리고 비싼 선물이 무언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할 뉘은 내 것이다.

이름 없는 기부 천사가 십 년 넘게 돈을 놓고 갔다느니 무기명으로 큰 액수를 보내왔다는 미담 기사를 접할 때는 뜻뜻미지근하게 보아 넘겼다. 근데 지금 그들 발끝도 못 따라갈 만큼 흥내를 내어보니 실로 그분들의 베품이 얼마나 큰 것인지 짐작이 된다. 곳간이 차고 넘쳐도 썩으면 썩었지 나누지 않는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은 보이지 않게 세상에 온기를 불어넣는 큰 손길이다. 그리고 난 요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걸 체험 학습한 기분일까.

첫날 만났을 때 아이가 잘 먹던 갈치도 굵고 이번에는 돼지갈비도 좀 해볼까? 머리를 굴려보는 것으로 나는 이제 나의 마지막 소임을 다하려 한다.

Letter 08

지역의 축제장 호박당구장

정한성 | 전남 목포시 옥암동

목 포시 옥암동에 있는 호박당구장에서 작은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른바 ‘제1회 호박당구클럽배 당구대회’. 호박당구장이 생긴 지 6년 만에 처음으로 자체 대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이 대회가 개최된 것은 MBC 라디오의 여성시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목요일의 ‘남성시대’에 소개된 것이 큰 영향을 주었다고 봅니다. 무려 세 번이나 소개되면서 호박당구장이 전국구로 급부상하자 당구를 즐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호박에서도 대회를 개최해 보자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식당과 치킨집 등을 하면서 쉬는 시간과 영업이 끝난 후 당구를 즐기는 가마솥시골통닭, 옥암골 식육식당, 사또보쌈 그리고 서희디자인 등이 앞장섰습니다. 이 영웅들이 스폰을 하고 현수막을 제공하는 등 후원을 하자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거기에는 호박의 최고령자이신 장재익 영웅님께서 20만 원을 후원하시자 순풍에 돛을 달고 거기에서 모터까지 장착한 듯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장재익 영웅님은 전에 진도와 완도와 여수에서 교육장님을 하셨고, 제가 목포옥암중학교 교감으로 근무할 때 교장으로 모셨던 분입니다. 교직관이 투철하고 인간성이 풍부하고 독서량이 엄청난 분으로 전남 교육계의 거목 중의 거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이십니다. 지금은 퇴임하셨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계십니다. 이 영웅님은 운동 신경도 뛰어나 골프나 배구 등 못하는 운동이 없는데 당구도 저보다 5개나 더 많은 21개를 치는 중수 정도 됩니다. 승부욕이 대단하신 이 영웅님은 고수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호박의 후배님들과 같이 열심히 연마 중이십니다.

존경하는 영웅님께서 20만 원을 후원하시자 호박당구장에서 한나도 못 치고 0점으로 패배한 사람들로 구성된 제로클럽 회장인 저도 20만 원을 후원하고, 호박의 터줏대감인 ‘즐겁게’란 닉네임의 이기열 친구 등 많은 사람이 후원하자 당구대회 개최는 급물살을 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9시 10분쯤에 도착하니 몇몇 출전 선수들이 연습하고 있습니다. 38명의 회원이 출전하고 구경을 온 사람들로 봄벼 축제장의 분위기는 서서히 달아올랐습니다. 경기 시작 전에 제로클럽 회장인 제가 개회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개회사를 했습니다.

“오늘 제1회 호박클럽 당구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호박당구장에서 웃고 즐기며 때로는 아픔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느낀 점들을 제

가 MBC 여성시대에 보냈는데 아마 여러분들의 이 훈훈하고 정겨운 모습이 보기 좋았는지 3회에 걸쳐 소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따스하게 오가는 정 덕분에 이제 호박당구장은 목포시 옥암동의 당구장이 아니라 전국적인 당구장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정답게 인사를 나누면서 매너를 지키고 고도의 당구 기술을 연마하여 호박당구장의 수준을 한껏 드높여 봅시다. 옛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행복 심은 데 행복 꽃 피고, 불행 심은 데 불행의 독버섯 자란다’고 바꾸고 싶습니다. 오늘은 물론 앞으로도 우리는 모두 항상 행복의 꽃만을 활짝 피우며 살아갑시다. 이상으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이 대회에서 저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1승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 1승은 진정한 1승은 아닙니다. 운 좋게 부전승을 한 것입니다. 부전승도 승리한 것은 확실한 것이니까 1승을 한 것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2차전은 높은 점수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고무적인 것은 제가 처음으로 2점을 먼저 쳤다는 것입니다. 항상 5대0, 6대0 이런 식으로 끌려다녔는데 이번에는 제가 먼저 2점을 쳐버리니 한때 당구장 안이 술렁거릴 정도였습니다. 결국 13대7로 지긴 했으나 대회 때마다 점수가 1점씩 올라가니 솔직히 신이 나긴 합니다. 이러다 언젠가는 진정한 1승을 할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대회 중간에는 우병수 사장이 협찬한 당구용품 등을 추첨하여 선물하는 등 화기에애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시합이 진행될수록 선수들의 수준 높은 실력이 발휘되어 여기저기서 가벼운 탄성들이 새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최종 결승전. 닉네임이 ‘쫄신’인 최종선 영웅과 닉네임이 ‘초이스’인 김선택 영웅의 대결은 그야말로 손은 물론 발까지 땀을 쥐게

하는 명승부였습니다. 최종 우승은 최종선 영웅이 차지했습니다. 상금은 80만 원. 준우승자에게 50만 원의 상금이 주어졌습니다. 다른 대회에 비하면 그리 많지 않은 금액이랄 수 있지만 한 당구장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보면 결코 적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승 후에 종신은 사또보쌈에서 호박 식구들에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병수 사장님도 협찬하여 호박의 가족들은 푸지게 음식과 술을 즐겼습니다. 준우승자 초이스도 별도로 잔치를 베풀었으니 그야말로 옥암동은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잔치 후에 몇 명은 노래방으로 갔습니다. 기분파이신 노래방 여사장님은 시합 중에 오셔서 협찬해 주셨는데 그에 대한 보답 차원도 있지만 평소에도 호박 식구들은 노래방에 가곤 합니다. 그만큼 문화예술훈을 사랑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곰곰 생각해 보니 호박 식구들은 요즘 유행하는 말로 ‘경제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가족 관계가 아닌데도 이토록 끈끈하게 뭉쳐서 희로애락을 나누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으니 말입니다. 얼마 전에 저의 둘째 아들이 결혼식을 했을 때도 고맙게도 20명이 넘는 식구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쯤 되면 ‘경제공동체’를 넘어 ‘운명공동체’인 것도 같습니다.

이번 호박 당구대회를 지켜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면 언제든지 축제장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도 서로를 아끼고 위한다면 얼마든지 이렇게 행복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으리라 봅니다. 모쪼록 한 식구 같은 우리 호박 선후배님들과 친구들, 앞으로도 쭉 이렇게 오손도손 재미있게 살아가기를 그리고 당구 실력이 일취월장하여 목표는 물론 전남, 나아가 전국까지 제패하기를 간절히 빌어봅니다.

Letter 09

어느 멋진 날에

박현예 |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

남편은 오늘 출장을 갔다. 이번 출장지는 부산이다. 두 시간의 회의를 위해서 하루 만에 부산을 다녀와야 한다. 새벽부터 일어나 있는 남편이 대견하고 하루 종일 운전해야 한다니 걱정이다. 근데 또 문득 쓸데없는 불안이 들썩인다. 심장이 멈춘 채 쓰러진 운전자를 태우고 도로 위를 위태롭게 달리는 차. 그 차를 있는 힘껏 쫓아가 자신의 차로 들이받아 세우던 영웅들. 내 불안을 알기라도 하듯 알고리즘은 그런 영상들을 보여주었다. 설마 그럴 일은 없겠지.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운전을 하며 행복한 계절을 만끽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 이제 불안한 생각은 그만.

급성심근경색으로 수술을 한 남편은 조금만 열이 나도 응급실로 달려가야 한다. 심장에 염증이 생겼을지도 모르니까 말이다. 아무 약이나 먹어서도 안 된다. 흔히 먹었던 통증 완화 약에도 관상동맥우

회술 환자 '복용 주의'라고 쓰여 있다. 그리고 나는 늘 아이들에게 말한다.

“혹시 엄마가 없을 때 아빠가 쓰러져서 안 일어나면 어디로 전화해야 해? 그렇지! 119 전화해서 위치 잘 알려줄 수 있지? 위치 알려주고 전화 절대로 끊지 말아야 해. 그리고 심폐소생술 어떻게 하는 거였지? 기억해?”

열 살 아이들은 나를 따라 불안해진다. 그래도 할 수 없다. 아이들이 불안해지는 게 싫어서 정말 위험한 상황에 아무것도 못 하는 아이들로 만들면 안 되니까. 그런 나를 보고 철이 없는 남편은 또 허허 웃으며 말한다.

“내 몸은 내가 알아. 쓸데없는 걱정 하네. 또~”

알긴 개뿔. 모르니까 몸을 그 지경으로 만들어놨지.

십여 년 전 어느 가을에 남편을 처음 만난 곳은 패밀리 레스토랑이었다.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나는 계속 공부나 할 일이지 무슨 바람으로 갑자기 소개팅에 나갔는지 아마도 시험으로 찌들어가는 내 청춘이 아쉬워 얼굴에 화장하고 꽃무늬 원피스 한번 입어보고 싶었던 모양이다. 스테이크 한번 썰고 싶었던 가보다. 그날은 무슨 일인지 나의 엄마도 딸내미 치장에 한껏 신이 나서 한때 미용실 원장으로 일했던 실력을 살려 열심히 고대기를 맡아주셨다.

남편은 하얀 털이 복슬복슬한 곰 같았다. 나의 아빠와 동생을 닮은 얼굴로 내가 좋아하는 여행 이야기를 하고 키우고 있는 시베리안허스키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러면서 허허허 사람 좋은 얼굴로 웃었다. 세 시간 동안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했다.

“저기, 죄송하지만 마감 시간 다 되었습니다.”

종업원이 다가와 말할 때까지 우리는 우리가 마지막 손님인 줄도



몰랐다.

“자, 일어나시죠.”

남편이 먼저 일어나며 말하다 우리 사이를 은은하게 비춰주고 있던 전등에 머리를 부딪혔다. 그리고 나는 그때 깨달았다. 그것이 기가 막힌 높이로 이 사람의 술 없는 머리를 가려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웃고 떠드는 사이 전등 아래 보이는 그의 환한 미소에만 집중할 수 있었음을.

남편은 여자를 꼬실 줄을 알았다. 특히나 나처럼 공부한답시고 연애 경험이 없는 순해 빠진 여자를 열광하게 하는 재주가 있었나 보다. 함께 가서 본 사주나 타로 카페에서도 다들 그랬다. 이래 봐도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다고, 천을귀인 사주라고, 꽃뱀을 만나도 여자가 먹여살릴 신살 중 가장 좋은 사주라나. 귀인을 만나면 받아먹을 노력만 하면 되는 사주라더니 나는 남편의 귀인이 되었고 남편은 적은 노력으로 결혼에 성공했다.

만난 지 얼마 안 되었던 가을 어느 날, 남편은 부산에 불꽃놀이를 보러 가고 했다. 그러면 자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내 거절에 하루 만에 다녀올 수 있다고 했다. 나는 남편의 말을 믿고 남편 차에 몸을 실었다. 하지만 어찌나 차가 많이 몰렸는지 우리는 차 안에서 몇 번 남지 않은 불꽃을 봐야 했다. 불꽃놀이가 끝나자 남편은 급격히 피곤해하는 모습을 보이며 서울에 올라갈 수 없을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기 시작했다. 이런 류의 드라마를 많이 본 적이 있었다. ‘아, 이런. 당했다!’ 하는 생각과 함께 남편이 제비처럼 불결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남편은 숙소를 잡아줄 테니 ‘혼자 들어가서 자라, 나는 차 안에서 자겠다’라는 역시나 드라마 대사일 법한 말을 했다. 그러라고 해야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순진했던 나는 짐질방을 찾아 억지로 데리고 가서 함께 밤을 지냈다. 나는 기억한다. 내 인생에 다리털이 그렇게 많아 보인 적도 면도기로 그토록 다리털을 세밀하게 밀어본 적도 딱 한 번, 바로 그날이었다. 그 면도기로 다리털이 아니라 진짜 내 머리털을 밀고 공부나 해야 했다고 후회해 봤자 이제는 소용없다. 이미 내 남편이 되어버린 이 남자를 열심히 보듬고 사는 수밖에.

15년 전에도 하루 만에 부산을 다녀올 수 없었던 남편, 오늘 밤 현관문에 들어서면 고생했다고 꼭 안아줘야겠다.

Letter 10

늘 제자리로 돌아오신 엄마

애청자

제 나이는 42살입니다. 어릴 적 자라온 모든 일이 어제 있었던 일처럼 생생한 건 지금이 더 행복해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엌이 있고 단칸방 하나에 다섯 식구가 가로세로 퍼즐 맞추어 잠을 잤고 동그랗게 모여진 각각의 방들 가운데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세면장과 화장실이 있었지요. 8살이 된 저는 제 방이 갖고 싶어 부엌과 방으로 이어지는 계단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크면서 저는 그곳이 여인숙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초등학교 5학년쯤 저희는 산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저희만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대문이 있고 방도 두 개, 마루, 옥상까지 있는 멋진 집이었습니다.

그러다 중학교 1학년 때 친구가 우리 집에 처음 놀러 와서 화장실에 아래가 보인다고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걸 보고 집 화장실이 다 그런

줄 알고 있던 저는 당황스러웠죠. 엄마는 놀러 온 친구에게 고추장을 풀어서 장떡을 해주셨습니다. 친구는 이런 거 처음 먹어본다며 좋아해서 저도 기분이 좋았지요.

안방 창문을 열면 앞집 지붕이 보이고 작은방 창문을 열면 옆집 창문이 보였습니다. 친구가 생기면서 저도 친구 집에 놀러 가면서 엄청난 문화 차이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친구 집은 아파트였고 화장실도 멋졌습니다. 친구 엄마는 저를 맞아주시면서 돈가스 and 우동을 배달시켜 주셨지요. 처음 먹어보는 놀라운 맛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와 시골 가기 위해 기차역에서 먹던 우동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저는 친구 방 창문에 보이는 푸른 하늘이 너무나 멋지고 부러웠습니다. 저렇게 하늘을 보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집에 와서 옥상에 밥상을 펴고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난해도 해맑았고 가지지는 못하지만 내가 모르는 세상이 있고 그걸 알아가는 게 마냥 신기하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은 시골시골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직장을 오래 다니지 못하는 성격이었고 의처증이 심해 엄마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서 엄마는 부업으로 생계를 유지하셨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집에 계시는데 부업 사장님이 일거리를 가져다주면서 농담으로 건네신 말에 꼬일 대로 꼬인 아버지는 그때부터 엄마를 괴롭혔습니다. 소리 지르고 때리고 싸우고. 어린 저와 동생들은 말리고 또 울고 그러다 도망 나가는 엄마를 우리는 두려움에 쫓아갔었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던 어느 날부터 그런 엄마를 보고 엄마가 도망가서 없다는 두려움보다 불쌍한 엄마가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도망가다 구석에 숨어있는 엄마를 못 본 척하고 눈물을 흘리며 동생들을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지금도 그날의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찬바람에 많이 울어서 볼이 다 터져 쓰라렸던 기억 때문인지 그 통증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늘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제가 지금 아이를 키워보니 그 마음이 이해가 가지만 그때만 생각하면 늘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버지는 십 년 전에 경비 일을 하다 바람이 나셨고 자식들을 모두 결혼시킨 엄마는 집을 나와 그제야 자유롭게 사셨습니다. 다 큰 저에게 이제야 털어놓으시는 아버지의 비밀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깨닫게 되었죠. 의처증은 본인이 나쁜 짓을 해봤기 때문에 생긴다는 걸요. 아버지의 바람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걸 보면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고, 엄마는 세 자식의 집과 멀리 떨어진 곳에 살면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지나온 삶이 지옥 같았어도 너무 가진 게 없었기에 조금씩 주어지는 것들이 더 소중한 거 같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엄마가 우리 곁에서 여전히 밥을 짓고 계셨고 학교 갔다 와도 집에서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게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 지금은 행복하시죠? 저도 행복합니다. 하늘이 보이는 창문이 있는 집에 살고 서로를 의심해서가 아닌 아이들을 더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 남편과 옥신각신하면서 살고 있으니 이제 더 이상 엄마 가슴 아프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늘 행복했던 사람은 될 수 없지만 점점 더 행복해지는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Letter 11

난 너무 대충 사나?

김정숙 |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장 룡 면허 32년 차. 잠자고 있던 면허를 깨워 남편에게 운전을 배웠습니다. 그동안은 버스 노선 다 알고 환승도 잘 되니까 굳이 운전의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남편이 주변에 다른 부인들은 다 운전하는데 저만 운전을 안 한다고 밤에 다리 잡기도 힘든데 운전 좀 배우라 해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비가 와서 못 하겠고, 밤에는 눈이 안 보여서 못 하겠고, 길을 몰라서 못 하겠다~ 다양한 핑계를 대면서 운전을 두려워했지만 지금은 운전대 잡는 것이 재밌고 세상 편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30분 거리를 10분 만에 갈 수 있더라고요. 물론 요즘도 뒤에서 빵빵 하면 “네네 미안합니다~” 하면서 운전하고 심장이 쫄깃쫄깃해질 때마다 ‘내가 왜 운전한다고 해서 내 자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나’ 싶지만 그래도 남편이 대리운전으로 저를 자주 불러줘서 뿌듯합니다. 돈

도 주는데 얼마 주게요? 3만 원. 그럼 제가 그래요.

“아니 손님, 밤 9시가 넘었는데 무슨 소리죠? 5만 원 주세요. 그래야 움직입니다.”

그러면 남편은 알았다고 빨리 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지난 금요일에도 남편을 데리러 갔다가 주차장에서 출차하려고 차단기 앞에서 머뭇거렸어요. 왜냐하면 제 차는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차량이거든요. 벨을 누르고 “무공해 차량입니다. 요금 인하해 주세요” 했더니 직원이 다시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에? 무슨 차라고요?”

저는 용감하게 다시 외쳤어요.

“무공해 차요!”

그러자 옆자리 남편이 다급하게 “아니야 아니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후~ 여보는 좀 조용히 해. 술 마신 사람이 뭘 나서~”

잠시 후 차단기가 올라갔고 한참을 달리다가 제가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아니 근데 무공해 차량이라는데 왜 못 알아들어?”

그러자 술 취한 신랑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저공해 차량~”

아~ 무공해가 아니고 저공해였구나!

사실 저는 신혼 초부터 그랬어요. 책 사러 간다는 남편을 따라가서 남편이 고른 책을 보고 이렇게 물었죠.

“여보, 3D 책 사는 거야? 그 직업 기피하는 3D?”

그러자 신랑이 다정하게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필요한 책은 3차원 설계 모델링 관련 책이야!”



“아 그래? 그 3D가 아니구나.”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인다더니 책을 펼쳐도 제 눈엔 알 수 없는 공식만 가득하더라고요.

얼마 전 가족들과 강원도로 여행 다녀오던 길에도 저는 고속도로로 입구에서 차가 꽉 막힌 걸 보고 자신 있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도 저기 하이마트로 가자. 저쪽이 잘 빠지잖아?”

그러자 신랑이 고개를 쪽 빼고 보면서 묻더라고요.

“어디? 여기에 마트가 있어? 보여?”

“아니, 저기 차들 쭉쭉 빠져나가는 거~”

“아~ 하이패스. 우린 저쪽으로 나가면 안 돼. 곧 차 바꿀 거라서 안 달
았어. 나중에 차 바꾸면 내가 ‘마트’ 그거 달아서 금방 나가게 해줄게.”

“아! 마트 아니고 패스구나. 그래도 이번엔 절반은 맞았네.”

저의 뻔뻔한 반응에 신랑과 애들은 배꼽 빠지게 웃었더랬죠. 이게
다가 아니에요. 남편이랑 티브이를 보다가 유명하다는 연천 한탄강으
로 놀러 갔을 때도 “이야~ 역시 여기 기네스북에 등재된 곳이라더니
사람들이 많네. 멋있다” 그러자 신랑이 저를 측은한 듯 바라보며 그
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당신 말, 알아서 잘 해석해서 들을게.”

엥? 대체 무슨 말이래? 이상했지만 저는 그냥 한참 동안 기다려 입
장권을 끊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상절리 협곡과 바위 절벽을 따
라 걷자니 투명한 유리 바닥과 아름답고 우아한 자연에 연신 감탄이
나왔어요. 그렇게 한참을 가다 보니 이정표에 어머니! 기네스북이 아
니고 유네스코 등재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어머! 여보~ 그게 아니야?”

“단어가 다른데 어찌 같은가?”

“뭐 다 같은 맥락이지. 내가 개똥같이 말해도 이제는 당신이 그냥
찰떡같이 알아들어.”

제 이런 억지에도 남편은 늘 그냥 웃어줍니다. 제가 매번 똑같은 것
물어봐도 “여보~ 잘 들어~” 하면서 설명도 잘 해줍니다.

“5살 연상 누나 힘들어. 나이가 많아서 다시 A/S 받을 수도 없고 흐
미 안타깝네” 하면서 또 웃습니다.

이런 우리 신랑을 제가 많이 사랑합니다.

Letter 12

어머니의 눈물

박문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지난 11월, 어머니 생신이 있을 것 같아 음력 날짜를 확인해 보았다. 음력으로 10월 17일 세 번째 일요일이 어머니 생신날이었다. 어머니 생신 후 3일 후가 결혼기념일이다. 몇 년째 어머니 생신도 아버지 기일도 명절에도 내려가지 못하고 있다.

명절 기념일만 다가오면 항시 불안한 마음이 생긴다.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자폐 장애 큰아들 때문이다. 큰아들이 커 갈수록 시골에 내려가는 횟수도 줄어들고 있고 내려가도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이제는 얼굴만 본다는 개념으로 바뀌어 바로 올라와야 되는 수준이 되어 버리니 고향은 갈수록 멀어지고만 있다.

어머니 생신을 생각해 보니 어머니가 1944년생인 게 생각이 났다. 그러면 80세. 잔치는 못 해도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라도 하면서 축하를 해줘야 되는 팔순이 아닌가? 만으로 팔십이면 한국 나이로는 지

난해에 팔순인데 혹시 나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팔순 잔치를 해버렸나? 아니면 형들도 모르고 넘어가 버린 것인가?

다음날 퇴근 후 동네에 있는 수정도서관에 들렀다. 도서관에 가는 게 일상이 되어 버렸다. 집에 들어가면 큰아들이 아빠를 보자마자 밖으로 나가자고 재촉한다. 밖으로 나가면 큰아들을 태우고 그만큼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도서관에 들어서 책도 조금 보고 도서관 옆 공원에서 즐نب기도 조금 하고 8시 30분 정도에 집에 들어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 버렸다. 이때까지가 아내와 큰아들이 버틸 수 있는 최선의 시간이 되어 버렸다. 시간을 보니 저녁 8시가 되어가고 있었다.

큰형에게 <일 끝났어요? 올해가 어머니 팔순인가?> 하고 문자를 보냈다. 야근이 잦은 큰형에게 전화를 걸어 볼까 생각했지만 야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서 문자로만 보냈다. 10분 정도 후에 큰형에게서 전화가 왔다.

“잘 지내고 있지? 몸은 괜찮아?”

“응, 오늘 야근 안 하는 날인가 봐? 어머니 생신은 어떻게 하나 그냥 궁금해서.”

“작년에 큰형수가 떡도 하고 수건도 맞추어서 동네에 돌리고 가족끼리만 식사했어.”

큰형이 간소하게 어머니 팔순을 작년에 치렀다고 했다. 나는 작년 어머니 생신날 큰형 가족하고 어머니가 함께 식사한 얘기만 들어서 팔순이라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 설마 알았다고 해도 찾아가 보지도 못했을 것이다. 큰아들을 데리고 찾아가는 순간 민폐가 되어 버리니까.

“목소리가 왜 이리 힘이 없냐? 여기 걱정은 하지 말고 준이나 잘 돌

봐. 어디 아픈 데 없지? 제수씨는 건강하고?”

“응, 하루 잘 버티며 생활하고 있어.”

잘 지내고 있다는 말이 버틴다는 말로 튀어나왔다.

“어머니가 막내 걱정을 제일 많이 한다. 그리고 제일 안쓰럽다고. 그리고 예전에 시골에 내려왔을 때 준이 데리고 빨리 올라가라 말했던 게 너무 한이 된다고. 막내는 20여 년 동안 준이를 돌보고 있는데 하루도 못 버티고 그렇게 막내 가족을 가라고 한 게 한이 된다고 하시더라.”

“응 걱정하지 마. 괜찮아. 잘 지낼게.”

전화를 끊었지만 내 눈은 흐릿해져서 시야가 가려 안경을 벗어야만 했다.

몇 년 전 늦은 여름휴가로 시골집에 간 적이 있었다. 딱히 며칠간 머물겠다고 하는 계획 없이 하루 이틀 정도만 머물다가 올라올 생각으로 내려갔다.

오랜만에 보는 어머니의 모습은 양상한 나뭇가지 모습이었다. 병원에 주기적으로 다니시는 어머니 몸에서는 양약 냄새가 묻어 있었다. 큰아들도 자기를 이빠해 주는지 미워하는지 구별은 하는지 자기를 좋아하는 할머니에게 싱긋 웃고는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뽀뽀도 하고 안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장군감 준이 말문만 확 터져 버리면 원이 없겠는데…” 중얼거리셨다.

큰아들은 할머니 집에서 원 없이 말썽을 부리며 돌아다녔다. 거실에서 마당, 거실에서 주방, 마당에서 화장실 등을 분주하게 움직이며 말썽을 피웠다. 나와 아내는 쫓아다니면서 뒤치다꺼리했다.

그러다 너무 말썽이 심하면 자동차를 타고 정읍 시내를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었다. 밖에 나갔다 온 큰아들은

또 밖에 나가자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만하자고 하며 버텼다.

큰아들은 마당에 있는 감나무에 매달려서 흔들면서 놀기도 하고 담장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마당에 있는 손수레를 끌고 다니다 엎어 버리기도 하면서 날뛰어다녔다.

위험한 행동은 못 하게 내 눈과 손은 따라다녔지만 큰아들 몸은 먼저 반응하였다. 큰아들이 담장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것을 어머니가 보셨다. 시멘트 블록에 지붕처럼 쌓아 놓은 기와 몇 장이 떨어졌다. 큰아들이 담장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보고 어머니는 “무섭다, 준이 다 칠까 봐. 무섭다. 빨리 올라가라” 말씀하셨다.

나와 아내도 더 이상 큰아들이 말썽을 부리면 안 될 것 같아 부랴 부랴 짐을 챙기고 성남으로 올라왔다. 어머니는 이 일이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것 같았다.

‘막둥이는 오랜 시간 준이를 돌보며 생활하고 있는데 나는 하루도 못 견디고 가라고 한 것이 한스럽다.’

어머니의 그 말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막내아들을 쫓아냈다는 기억의 감옥에서 살아오신 것이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생각이 들었다.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왜 어머니께서 가슴 아픈 기억을 한으로 만들어 스스로 가두시는지 나는 큰아들이 더 사고를 칠까 봐 올라온 건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피했을 뿐인데 말이다.

큰아들이 초등학교 때에도 어머니께서 흐느낀 기억이 새로이 떠올랐다. 명절날 밤에 큰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부산하게 왔다 갔다 했다. 아픈 아버지는 아이를 타이르기도 하고 엄포도 놓고 혼도 내고 하였지만 큰아들은 잠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다른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모텔에 가서 자기로 결정하고 집에서 나와 모텔에 가서

잔 적이 있었다.

분명 내일 아침에 온다고 말은 하였지만 어머니는 다음 날 아침에 큰형에게 전화해서 흐느끼면서 막둥이 서울에 올라갔다고 이를 어찌냐고 하셨단다. 큰형 전화를 받고 어머니와 통화를 했다.

“여기 시내 모텔이에요. 준이 어제 새벽까지 안 자고 지금 자고 있으니까 준이 깨면 들어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 전화를 받고도 어머니는 계속해서 우셨다.

어머니 생각만 하면 언제나 죄송한 마음이 앞선다.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용돈도 드리지도 못하고 어머니에게 가슴 아픈 일만 만들고 생일이 돼도 같이 식사도 못 하고 팔순도 잊어버리고 어머니, 큰형 가족, 둘째 형 가족, 우리 가족 온 가족이 모여 해외는 아니라도 국내 여행이라도 가고 싶은데 이제 가족 모임도 참석 못 하고, 못하는 것만 가득 차고 있다.

어머니, 막내아들 하루하루 잘 버티고 있습니다. 열아홉 큰아들, 이제껏 19년 버텼습니다. 아직 더 버틸 힘이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막내아들 내쫓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머니 가슴 아픈 기억은 다 잊어버리세요.

Letter 13

묵은쌀 드립니다

김미자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김 장할 때 시골에 다녀왔습니다. 엄마 살아계실 때는 배추 150포기까지도 했는데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는 많이 안 하게 됐어요. 이번엔 50포기 정도 했는데 그것도 힘들었어요. 김장하러 가서 반성할 일이 생겨서 말씀드리려고요.

엄마 돌아가시고 아빠 혼자 적적해 밭일 외에 소일거리로 토끼랑 닭을 키우세요. 시골에 먹이로 줄 게 많은 것 같아도 추워지면 애네들 먹는 양이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료도 사서 먹이곤 하죠.

많이 먹고 똥똥하면 ‘돼지 같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건 진짜 잘못된 표현 같아요. “이런, 토끼같이 똥똥하군!” 혹은 “이런, 이런! 닭처럼 잘 먹네!”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애네들의 먹성은 대단해요. ‘내가 애네들한테 방금 먹이를 줬나?’ 싶을 정도로 흔적조차 찾

을 수 없게 잘 먹어요.

제가 채소마켓을 자주 이용하는데 ‘묵은쌀 드립니다’, ‘벌레 먹어서 동물 먹이로 쓸 분 드려요’ 하면서 묵은쌀이나 잡곡을 나눔 할 때가 있어요. 그걸 받아서 닭 모이로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묵은쌀 알림’이 올 때마다 채팅을 보내봤지만 다들 채소마켓만 보고 있는지 나눔 받기가 잘 안됐어요.

번번이 실패하다가 마침내 나눔을 받고 감사히 받아왔어요. 페트병에 쌀이며 팥, 현미 등이 담겨 있는데 양도 꽤 많아서 ‘가져가면, 아빠가 좋아하시겠구나’ 생각했죠.

김장하러 가는 날, 시골 가자마자 나눔 받은 쌀을 꺼냈습니다.

“아빠, 이것 봐. 사람들이 안 먹고 버리는 거 내가 받아왔어. 잘했지? 양도 꽤 많아서 며칠은 먹일 수 있겠지? 사룻값 조금 아낄 수 있겠다.”

아빠는 쌀이 담긴 병을 이리저리 돌려가며 살펴보고 뚜껑을 열어 손바닥에 쌀을 털어 다른 손으로 훑으시고 냄새도 맡아보셨어요. 그러면서 실망한 목소리로 “이거 험쌀은 아니어도 먹어도 뱃속에 지장은 없는 건디 누가 이렇게 많이 버렸다니” 하며 다시 냄새를 맡아보셨어요.

“에이~ 아빠, 이거 사람이 먹기엔 좀 그렇지 않을까? 이것도 간신히 갖고 온 거야. 버리는 사람은 많은데 경쟁이 치열해. 잘 갖고 왔지?”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 부모가 자식들 맛있게 먹으라고 어렵게 농사지어서 준 걸 먹지도 않고 이렇게 썩여 버리거나 하구. 그러믄 못쓰는겨잉. 부모들이 이거 하느라 여름내 얼마나 왔다 갔다 바빴겠냐? 너희들은 이게 쉬워 보이지? 이런 게 거저 똑딱하고 생기는 게 아녀. 쌀알 하나 얻으려면 여름내 눈에 물 대러 땀겨야 하고 맨땅에 대과

심고 호박 심으면 거저 나는 거 같지? 땅에 거름도 치고 모양 잡아 독도 만들고 벌레 먹으면 안 되니 약도 치구, 더운 여름내 허리 숙여 고추 따서 닦고 말리고. 뭐든 그냥 되는 게 읍는겨.”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빠는 토끼장으로 가셨어요. 아빠는 주먹에 쥐고 있던 쌀을 토끼장에 던져주고는 하늘을 한 번 쳐다보며 다시 깊은 한숨을 지으셨어요.

“너도 시골에서 가져온 거 더럽다고 버리고 그러냐? 텔레비에서 그러드라. 시어머니가 담가준 김치 더럽다고 안 먹고 시어매 가고 나면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김치가 왜 더럽다니? 시골에선 물 팔팔 나오겠다 도시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서 좋은 고춧가루에 좋은 양념 넣어서 자식 맛있게 먹을 거 생각하며 만들어 주는데, 그게 뭐가 더럽다고 안 먹고 버려?”

“아빠, 다 그러는 건 아니야. 난 안 그래. 왜 버려? 안 버리고 잘 먹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진짜 못쓴다. 너희 엄마 살아 있을 때 봤지? 너희들 준다고 맨날 허리 굽혀가며 김치 담근 거. 그게 별거 아닌 거 같아도 쉬운 게 아녀.”

묵은쌀 가져다드리면 “아이고~ 닭 모이 하면 좋겠다. 잘 갖고 왔다!” 하고 좋아하실 거라고만 생각했고 거기에 칭찬까지 기대했는데 아빠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아빠 말씀 듣다 보니 저도 죄송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큰아이 낳고 시어머니께서 일주일 정도 산후조리 해 주러 오셨어요. 남편은 출근하고 저는 계속 잠이 와서 시간만 나면 잤어요. 제가 낮잠 자고 있을 때 시어머니께서 모유 수유하는 저를 위해 무 넣고 맵지 않게 물김치를 담그셨어요. 시골로 가며 말씀하셨죠.

“냉장고에 김치 넣어 놔다. 맛없어도 잘 먹어라. 그래야 산모 젖도 잘 나오는겨.”

냉장고를 열어보니 물김치 양이 꽤 많았고 가만 생각해 보니 ‘우리 집엔 저 많은 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는데 대체 어떻게 이걸 하셨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어머님께 여쭙보았더니 이럴 수가! 빨래하는 큰 대야에 김치를 담그셨다는 거예요. 어머니께서는 깨끗이 닦았다고 하셨지만 제 기준에선 아닌 것 같아 남편과 상의해서 아깝지만 버리기로 했어요. 어머님께 맛있게 잘 먹고 있다고 선의의 거짓 말을 했어요. 어머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텐데 너무 죄송해요.

솔직히 저도 시골에서 욕심부리고 많이 가져와 다 먹지 못하고 씌어서 버린 때도 있어요. 시골에 채소와 먹을거리가 넉넉하니 아까운 줄 몰랐어요. 쌀 아까운 줄 모르고 밥도 양껏 폼다다 배부르다고 남겨서 버린 적도 많아요. 정말 죄송하고 반성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뚝딱!’하면 나오는 거라 여기진 않았지만 귀한 줄 모르고 먹었던 거 같아요.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러 가면 쌀, 콩, 호박, 오이 등을 버린 걸 종종 볼 수 있어요. 물론 사정이 있겠지만 부모님 생각해서 다 못 먹을 것 같으면 주변에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 일로 많이 반성하고 부모님 마음 헤아려 감사한 마음으로 허투루 버리지 않고 잘 먹겠습니다.

Letter 14

사회활동이 보름 남은 청년

최종혁 | 대전광역시 서구

나는 남성 직원들이 대부분인 중공업 회사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다 입사 11년 차에 IMF를 맞아 회사가 어려움을 겪었고 1년을 더 다니다 누나의 권유를 받아 기나긴 회사 생활을 청산했다. 그 다음 가진 직업은 떡집 사장이었다. 누나는 늘 회사 다니는 것보다 젊어서 본인 가게를 열면 빨리 돈을 모을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과감하게 다니던 직장을 정리하고 누나가 살고 있는 대전으로 와 터전을 잡았다. 그 당시 대전에서 최고로 부자 동네로 불리던 전민동 엑스포 동네에서 가게를 차린 것이다.

나는 14년 8개월 동안 장사를 했는데 떡집 특성상 잘 되면 밤샘 및 새벽 근무를 하는 날이 부지기수였고 그러다 보니 나와 함께 일하던 아내도 고단함에 지쳐 몸이 병들기 시작했다. 이쯤 되니 먹고 살 만큼 벌었으니 평생 내가 좋아하는 여행이나 다니자 하는 생각으로 가게

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왜 이런 옛말이 있지 않은가. 노는 것도 놀아본 놈이 잘한다는 말. 부모님의 근면 성실함을 보고 자라 와서 그럴까.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 얼굴만 닮아 가는 게 아니라 부모님 생활 습관도 닮아 가는지 마냥 속없이 노는 생활도 지루해지기 시작했다.

아, 평생 일을 하던 사람은 소소하게라도 일을 해야 하는구나 싶어 나는 다시 늦깎이 나이에 가족병원 간호직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그렇게 또 10년을 일해 왔고 이제 여기서 사회생활 정년을 맞는다.

내가 입사할 때만 해도 우리 병원 간호직 정년은 만 58세였는데 좀 다니다 보니 슬그머니 정년이 늘어 60세가 됐고 그러다 몇 해 전부터는 만 62세로 못 박혀있다. 나와 5층에서 같이 근무하던 동갑내기 친구도 나보다 두 달 전에 정년을 맞아 퇴사했다. 정말 사회생활에 끝을 찍게 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싱숭생숭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의 넷째 자식인데 내가 어느새 정년을 채웠듯이 우리 어머니도 세월을 맞아 벌써 94세라는 나이로 건강이 아주 안 좋아지신 상태다.

제작년 12월 초에는 어머니를 도저히 집에서 모실 수가 없어 내가 근무하는 5층 병실로 모셔 왔었다. 어머니는 지금도 병원 신세를 저가며 구강으로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하시고, L튜브 일명 코콜로 영양을 공급받아 생명을 유지하고 계신다.

난 출근하는 날이면 어머니를 보기 위해 매번 병실에 들렀다. 그러면 간병사님이 “어머님~ 아드님 오셨네요” 하시는데 어머니는 눈을 번쩍 뜨시곤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반긴다.

근무하다 보면 한밤중에 병실 라운딩을 돌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어머니 방에도 들어가 병실에 무슨 일은 없나 둘러보는 것이 습관이 되

었다. 퇴근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머니 병실에 들어서면 간병사님이 “아드님 또 오셨네요” 말씀하시고 어머니는 간신히 나오는 목소리로 “어서 가서 밥 먹어” 하신다. 난 농담 삼아 “엄마는 아침밥 먹어 배부르겠네” 말하면 엄마는 입으로 식사한 것이 아니라 L튜브로 경관을 드셨기 때문에 밥을 먹은 게 아니라며 가냘픈 목소리로 말씀하신다.

“어서 가, 밥 먹어. 맛있는 밥 먹어.”

몇 달 전에 먼저 퇴사했던 친구가 당시에 너는 왜 퇴직하지 않고 더 근무하냐 묻길래 “퇴직 연장 신청을 하면 되는데 그중에서도 선별 연장이라는 게 있대” 알려주었더니 그게 소문이 났다고 한다. 다른 층 선생님들이 최종혁 선생님만 연장이 되냐고 따져서 나도 일률적으로 퇴사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들의 입장도 조금이나마 이해가 된다.

병실에 간병사님들은 칠십 넘어서도 일을 하신다. 하지만 정년이 있는 직장인들은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을 갖고도 퇴직 날짜면 나가야 하지 않는가. 여전히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인데도 나이가 차서 사회 생활을 그만두어야 하는 동료들을 보며 대다수는 직원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퇴직 연장이란 제도가 빨리 정착되었으면 한다.

병원은 다른 직장에 비해 이직률이 월등히 높다. 10여 년 병원에 근무하는 동안 수많은 선생님과 이별도 해봤고 새로 입사하는 수많은 선생님과 만남도 해봤던 우리 병원. 직장도 놀이터처럼 즐겁게 다녀야 한다는 평소의 신념을 지킬 수 있도록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준 우리 동료들에게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선생님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달의 손편지

한남중 미용정보 고등학교와 나

박영숙 | 대구광역시 북구

저는 경북 예천군 유천면 매산리에서 삼남 이녀 중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의 우리나라 특히 시골 실정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그 때는 저희들이 공부하기 싫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들은 가정이 어려워져서 자식들 공부를 시키려 못 하셔서 마음 고생이 컸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침을 먹고나면 한아버지께서 숙아 들어가자 하시면 네 하근 책가방을 챙겨서 학교로 안러가서 공부를 하면서 초등 6년 개근을 하고 중학교는 못 가고 결국은 봉사원에 접어들었습니다. 시골생활에 접어들면서 한해 한해 기대다보니 어느덧 성인으로 다 큰다고 24살에 대구로 시립을 와서 낫설고 환경이 선 곳에서 시립생활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 합니다.

그 시절에는 도시에 권척들이 있으면 시골에 계시는
 권척분들은 자식들을 도시로 유학은 보내셨답니다
 저는 고등시동생 시누이 4명하고 옥촌시동생 1명하고 저희 시동생
 시누이 4명하고 하루에 도시락을 8개를 삼년동안 사면서
 힘든 시절을 지나고 저 자식 3남매 대학까지 공부시켜서
 결혼하고 나니 이제는 나의 할 일을 다 할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나의 생활은 하고 싶어서 중학교를 나왔는데요 그때 마침
 친구가 중학교가라고 해서 접수하고 공부해서 시험쳐서
 합격소식 받고 중학교 입학과 졸업하고 또 고등학교에 입학은
 하겠 되어서 너무 좋았답니다. 저 나이 칠십넘어서
 중학교 졸업에 고등학교 졸업에 아니 대학교까지 자부
 원서 내놓고 합격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합격의 소식을
 받고 너무 기쁘고 감격 했습니다 한남 중 미용정보 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 감사의 인사 드릴려고 편을 잡았습니다
 이.중.고등학교에서 해마다 7.8백명의 남.여 어른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공부를 해서 졸업을 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학교에 선생님께서도 감사
 라고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의 한남학교가 있다면

눈 뜬 강남으로 이 험란 세상에 나 홀로 헤쳐 나가기가
너무 벅찼을 텐데 든든한 나의 방패가 된 관남은
영원히 잊지 않을 사랑 갑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학광시절은 하루하루가 아쉬움과
대학 진학이라는 큰 기대감을 오늘도 최선을 다 하면서 죽어간
나의 깊은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학교를 위해서 11행시를 해보겠습니다.

한 : 남이 있어서 나는 너무 좋다

남 : 등 하는 공부를 할수 있어서

중 : 학교는 내일중에서 졸업은하고

미 : 수는 내일에서도 배우고 한남에서도 배우고

용 : 기를 내서 고등학교를 잘알고보니

정 : 보는 틈새 온 곳이 이관남 고등학교다

보 : 잘알게 공부를 한려고

고 : 등 학교에 입학은 했습니다

등 : 교를 해서 공부는 하니 너무 좋습니다

학 : 업에 연동해서 졸업하고 대학도 갈수있고

교 : 신에도 오십명의 학생이 모여서 공부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

지금 2025학년도 신입생들 모집기간입니다 - 이 방송이 전국에 퍼져서 초·중·고등 졸업하고 대학도 가지 않은 젊은이들은 이 학교로 연락 하셔서 알아보십시오.

2년씩 공부해서 졸업하시면 교육청에서 인정하는 졸업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비만 들어서 입학하시면 모던것이 공짜입니다

대주.정복에 남.여 어르신들이 다 모여서 공부하는 곳입니다

지하철 1호선 타고 화원역에 내려서 3번 출구로 나오시면 옆에 가면 큰 담을 곳에 모든 3호선거리에 있습니다.

이 학교에 많이 많이 오셔서 하고 싶은 공부 하고 좋은 대학도 가세요

행정실 053-631-4451

이 편지 전국에 알려진다면 저와 학교도 영광입니다

말이든 배우론 오시기 전국에 알려주세요

두분 건강하세요.

한밤중 졸업생 3학년 5만 명 명 숙입니다



여성시대 사진방



[7659] 베트남에서 오신 우리 직원분과 눈 쌓인 상추 하우스에서 상추 따고 있어요. 손 시려요.



[6922] 올해의 신춘편지쇼를 기대합니다. 내가 혹시 1등이 되는 건 아닌지...



[8431] 물류 창고에서 일해요. 기모 바지를 입었는데도 추워서 손이 굼았어요.



[5881] 저희 아들은 이려고 유치원 갔습니다.



[7842] 호박죽 해 먹으려고 따 놓은 호박에 눈이 쌓였습니다. 여기는 안동입니다



[4695] 저는 2019년부터 모으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 보려고요.



[8586] 제 여성시대 책자입니다. 제가 아끼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0622] 2022년 8월부터 모으기 시작했어요. 여성시대를 오랜 시간 동안 들으셨던 분들 앞에서 주름잡을 수 없지만 그동안 모은 월간 여성시대 인증해요. 월간 여성시대는 라디오에서 들었던 사연을 글로 읽을 수 있는 또 다른 재미가 있어요!



[0007]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님들도 보시라고 사무실에도 비치하고 집에 서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1401] 1997년 7월부터 모으기 시작했네요. 한 달에 한 권씩 책보기 실천 중입니다.



[5694] 가끔 언니가 받아서 읽고 제게 택배로 보내줘서 읽고 있어요. 제가 사는 시골엔 은행이 없거든요.



[9418] 매월 10일 여성시대 월간지 받으러 기업은행에 갑니다.



[7823] 제가 모은 월간 여성시대입니다.



[9292] 여성시대 왕팬입니다. 더 많았는데 이사 다니면서 분실하고 나누어 주고 하다 보니 이것뿐이네요.

오늘의 추억

글/그림 28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여성시대 가족 강선미 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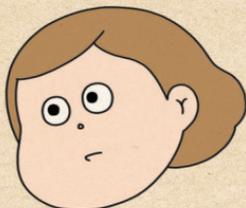
보내주신 사연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잘 지내고 계셨습니까.

경만아
너 친구 만나고
들어온다더니?

저녁은?



친구 만나러 가는데
이거 들고 가기
거추장스러워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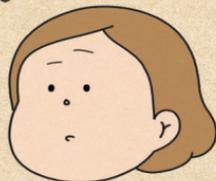


이게 뭔데?



둘째 아들이 내려놓은 쇼핑백엔
홍삼과 화장품 세트가 들어있었습니다.

민아 이거 어디서 샀어?
네가 돈이 어디 있다고?



예비군 훈련받으러 갔다가
PX에서 샀어요.
엄마 아빠 생각이 나서요.
그럼 저는 나갔다 옵니다~

손 무겁다며 반찬 하나
가져가라 해도 싫다고 질색하는 아이가
예비군 훈련받으러 가서 선물을 사왔더니
마음이 몽글몽글 해집니다.

...녀석 다 컸네.



몇 년 동안 같은 점퍼만 입고 다니는 남편
겨울옷 하나 사주려고 조금씩 모아놓은 돈 중
십만 원을 아이 동장에 입금했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전화해 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애 민이가 글썽
예비군 훈련 갔다가
홍삼이랑 화장품이랑
잔뜩 사서 들어왔지 뭐니?



엄마 나도 들었어요.



그래? 알고 있었어?



음 그날 저녁에 동화했어.
기특해서 용돈 좀 부쳐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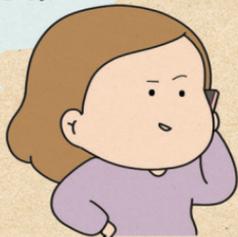


...우선 끊어봐.



큰 아이가 작은 아이에게
십만 원을 입금해 줬다는 말에
뭔가 느낌이 싸합니다.

여보 혹시
둘째 용돈 줘어?



응 기특해서
십만 원 정도 부쳐줬지.



이 이야기를 전하니 첫째는
우리 모두 당한 거라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엄마 이거 둘째가 용돈 받는 수법 같은데?
Px에서 홍삼이랑 화장품 얼마나 해.
개 그거 사 와서 지금 얼마를 챙긴 거야.

우리 고도의 심리전에
말려든 거야.

아하하하하



고도의 수법(?)으로 용돈 두둑이 챙긴 우리 둘째 아들
엄마는 그저 기특하고 고마워~



국내 최대 규모의 럭셔리 글램핑, 선재담리조트



IBK기업은행 화성병점지점 거래고객

(주)대형디앤씨 조부형 대표

글 | 장채순(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하룻밤 폭설로 온 세상이 설원으로 변했다. 오이도와 대부도를 지나 선재대교를 건너니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경관 안에 자리 잡은 선재담리조트가 하얀 눈과 만나 겨울왕국 속으로 들어온 듯 환상적이다. 사시사철 변화하는 자연풍광을 즐기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가는 곳, 선재담리조트를 소개한다.

인천 영흥도 남동쪽에 위치한 선재도. 주위의 경관이 매우 아름답고 수려하여 선녀가 내려와 춤을 추던 곳이라 하여 이름 지어졌다. 영흥대교와 선재대교가 섬과 연결되어 있어 수도권에서 당일치기 여행을 하기에 안성맞춤이다. 복잡한 도시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며 힐링할 수 있고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낚시를 즐기기에 좋은

위치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낚시터 중 하나인 선재낚시공원이 위치해 있어 낚시를 좋아하는 강태공들에게는 유명한 곳이다. 선재낚시공원은 거대 양식장과 같은 바닷물 낚시장에 컨테이너형 방갈로가 빙 둘러져 있어 쉬면서 낚시를 즐길 수 있다. 돔, 우럭, 광어 등 인기 어종을 잡을 수 있어 손맛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다.



이처럼 선재도의 핫플레이스로 각광받는 선재낙시공원 바로 근처에 지난 10월, 압도적인 규모의 럭셔리 글램핑을 즐길 수 있는 '선재담리조트'가 문을 열었다. 51동의 글램핑장과 10개의 카라반, 7종의 텐트존, 그 밖에도 선재도 바다를 바라보며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수영장,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펫그라운드,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천연 잔디가 깔린 플레이그라운드, 음악회나 강연 등을 할 수 있는 야외 루프탑 공연장도 마련되어 있어 소규모 인원뿐 아니라 회사나 단체의 워크숍 장소로도 안성맞춤이다.

“제가 어릴 때부터 낚시를 무척 좋아했어요.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서 가족들과 함께 낚시하러 다니다 보니 아내와 아이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고 뛰놀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다른 가족들도 더욱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선재담은 이런 저의 꿈을 담아 완성한 공간입니다.”

선재낙시공원에 이어 선재담리조트를 오픈한 조부형 대표의 이야기다. 그는 반도체 회사에서 일하다 29세의 이른 나이에 퇴사한 후 반도체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 대형디앤씨를 창업하였고 20여 년 후 어



릴 때부터 간직한 꿈을 이루기 위해 2017년도 짜냥시터를 시작으로 2023년도에 루어냥시터, 2024년 10월 글램핑장을 오픈했다. 냉시터를 방문하는 손님이 1년에 20만 명이 넘기 때문에 선재담리조트는 냉시와 글램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이미 입소문이 나고 있다. 특히 기존 캠핑장이나 글램핑장의 단점을 보완하여 냉난방 시설을 철저히 하였고 가족들이 함께 뛰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손님들의 만족도가 높다.

“대형디앤씨는 제가 직장생활을

통해 잘 알고 있는 분야를 기반으로 창업을 하여 성장해 왔다면 선재담리조트는 저의 꿈이 담긴 사업입니다. 이번에 오픈한 글램핑장과 냉시터가 서로 시너지를 이뤄서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싶습니다.”

조부형 대표는 사업을 하면서 거래처의 갑질로 인해 좌절하고 주변의 견제와 과도한 경쟁으로 사람들에게 실망하는 일도 많았지만 냉시를 통해 치유하며 지극에 이르렀다. 마지막으로 그는 냉시터와 글램핑장을 찾는 손님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방문하고 싶다는 평



을 듣고 싶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IBK기업은행 화성병점지점 김분희 지점장은 “조부형 대표님은 열정과 꿈을 행동으로 옮겨 목표를 달성하는 부지런하고 이상적인 CEO”라며 “하루 종일 선재담의 넓은 공간을 직접 가꾸고 다방면으로 연구하

는 모습을 보면 선재도가 세계적인 관광지로 나아가는 데 선재낙시공원과 선재담이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응원했다. 아울러 “서해를 품은 선재담리조트가 국내 최고의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도록 IBK기업은행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주)대형디앤씨 조부형 대표(왼쪽)와 IBK기업은행 화성병점지점 김분희 지점장

! (주)대형디앤씨 조부형 대표의 운영 노하우

1. 꿈을 이루기 위해 열정을 쏟아라.
2. 기존 글램핑장의 단점을 보완하라.
3. 최고의 서비스로 고객들의 만족을 이끌어 내라.

(주)대형디앤씨

대 표 조부형

전 화 032-710-4340

주 소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선재로226번길 164

홈페이지 <https://sunjedahm.com/>



오직 제품력으로 소비자들에게 인정받다



IBK기업은행 면목동지점 거래고객

(주)씨엔엑스 이석기 대표

글 | 장채순(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국내 캠핑 인구 700만 시대다. 복잡한 도시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휴식하고 즐기는 캠핑 인구가 해마다 늘고 있다.

이런 흐름에 따라 캠핑용품 시장도 커지고 있다.

씨엔엑스의 노스피크는 오직 제품의 품질로만 승부하여

캠핑용품 부문 4년 연속 브랜드 대상에 선정되었다.

오랜 기간 축적된 기술과 합리적인 가격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는 씨엔엑스의 스토리를 들어본다.

(주)씨엔엑스는 캠핑용품 제조·판매 업체다. 2005년 노스피크(NORTHPEAK) 브랜드를 런칭하며 창업한 이석기 대표는 최근 사명을 (주)씨엔엑스로 변경했다. 사업 확장성을 위해 사명을 새로 만들어 브랜드명과 분리한 것이다.

무역학을 전공한 이석기 대표는 10여 년이 넘게 수출 관련 업계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캠핑용품 사업을 시작하였다. 전 직장이 여러 나라에 제조 기반을 둔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였는데 당시 회사에서 마진율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캠핑용품 분야의 사업을 접었고 담당 부서장으로 있던 이석기 대표는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됐다. 당장 일자리를 고민하다 창업을 결심했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아는 분야였던 캠핑 용품 관련 회사를 창업했다. 당시 퇴직금과 회사에 다니면서 모은 돈을 투자해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장생활을 할 때 몇 년간 근무해서 현지 사정을 잘 아는 베트남에 공장을 세팅했다. 하지만 문제는 오더가 없다는 것. 이석기 대표는 직접 국내외 바이어들을 찾아다니며 계약을 위해 힘썼다.

“사업 초창기에 작은 규모의 몇몇 업체와 계약했지만 그것만으로는 공장을 유지할 수 없었어요. 공장을 유지하려면 규모가 큰 업체의 오더가 꼭 필요하거든요. 우여곡절 끝에 직장생활을 할 때 인연을 맺었던 유럽

쪽 바이어와 계약했고 신생업체라 부족했던 자금까지 융통해 주면서 사업이 순항할 수 있었죠. 사업 시작 당시 거래처 사장님들의 도움이 많았어요. 1년씩 자재를 그냥 납품해 주시기도 하고 무작정 돈을 빌려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이런 주변의 도움은 이석기 대표가 쌓은 신뢰와 믿음 덕분이었다. 직장생활을 할 때 부사장이 되면서 영업비를 줄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래처와 정당하게 거래하도록 개선하였고 이로 인해 정직과 신뢰의 이미지를 쌓았다. 성품 자체가 울곧고 바른 이석기 대표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도 이런 방침을 그대로 가져



왔고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 혜택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노스피크는 텐트를 비롯해 타프&스크린, 테이블&체어, 캠핑 액세서리 등 다양한 아웃도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10여 년 전부터 다양한 특허를 획득하였고 몇 년 전부터 붐이 불고 있는 에어텐트를 가장 먼저 시작한 곳이 바로 노스피크다. 야외 생활도 집처럼 편안해야 한다는 motto 아래 설치가 쉽고 편한 텐트들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몇 년간 여성 캠핑족이 늘면서 여성들의 감성을 겨냥한 캠핑용품을 개발하고 텐트를 경량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는 집단지성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제가 독단적으로 경영하기보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우리 회사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소통하며 회사를 성장시키고 싶어요. 앞으로도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제공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IBK기업은행 면목동지점 김규숙 지점장은 “이석기 대표님은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가치 창출에 집중하고 기본 원칙을 준수하여 정직하고 투명한 기업을 만들어 나가고 있

다”며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행복하고 소비자들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싶어 하는 대표님의 뜻을 지지하며 세계적인 캠핑용품 기업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IBK기업은행이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주)씨엔엑스 이석기 대표(왼쪽)와 IBK기업은행 면목동지점 김규숙 지점장

① (주)씨엔엑스 이석기 대표의 운영 노하우

1. 정직하고 투명하게 회사를 운영하라.
2. 제품력으로 승부하라.
3. 직원들이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도록 서포트하라.

(주)씨엔엑스

대 표 이석기

전 화 1600-1767

주 소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양진로470번길 2-27 노스피크

홈페이지 <https://www.northpeak.co.kr/>

코너 속 편지

사랑 사랑 사랑

83 연탄집 아들

89 그땐 미처 알지 못했지

94 내 남자는 요리왕

101 뭐든 고쳐주는 남자

여자는 모른다

107 백마 타기 싫은 왕자



일러스트 | 조신애

사랑 사랑 사랑

연탄집 아들

애청자

“아이고, 대다~ 규야~ 니 연탄 네 개만 배달하고 온나!”

“엄마, 내 학교는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에이~ 이것만 좀 해도! 아, 얼릉~”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저는 동네에서 ‘연탄 집 아들’로 불렸습니다. 아버지는 촌에서 배추 농사를 짓고 계셨고 어머니는 혼자서 연탄집을 하셨는데 겨울에 배달이 밀려있을 때는 어머니를 돕느라 학교를 빼먹는 일이 다반사였지요. 매일 리어카를 몰고 이 집 저 집 다니며 연탄을 나르고 있으면 동네 분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규야~ 고생한데이. 니 밥 묵웃나? 아줌마가 고구마 주께 가꼬 가서 엄마랑 노나먹으레이~”

“니 학교 안 가나? 진희랑 창식은 아침 일찍 나갔데이~”

“규야~ 거 놓고 퍼떡 가레이~”

하도 수업을 빼먹다 보니 공부에 흥미가 없는 건 당연지사. 하지만 그렇게 땡땡이치는 게 좋았냐고 묻는다면 저의 대답은 ‘절대 노(No)’였습니다. 학교에 가면 저의 첫사랑! 우리 집 바로 옆 미장원집 큰딸 ‘진희’를 볼 수 있었거든요. 진희는 미장원집 딸 아니랄까 봐 쌍꺼풀이 없는 단아한 눈에 우윳빛 피부, 늘씬한 키를 가져 귀티가 잘잘 흐르는 친구였어요. 또래 여자아이들과 있으면 단연코 그녀가 두드러져 보였고 진희가 교과서를 읽는 모습, 아이스계끼를 사 먹으며 좋아하는 모습, 시마차기 놀이에 열심인 모습을 볼 때마다 숨이 멎곤 했습니다.

“엄마~ 저 학교 갑니데이.”

“어야~ 조심히 다녀오나.”

같은 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접점을 만드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같이 수업을 들을 생각하면 힘이 불끈 났어요. 진희가 지나갈 때 나는 동백꽃 냄새. 그 냄새 하나 맡겠다고 빛의 속도로 배달 일을 끝내곤 부리나케 학교로 달려갔지요.

돌이켜보면 그 시절은 정말 ‘야만의 시대’였습니다. 저학년 때는 몰랐는데 6학년이 되니 애들이 머리 좀 컸다고 자기들끼리 서열을 만들고 왕따를 시키더라고요. 학교 빠지기를 밥 먹듯이 했던 저는 자연스레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해 그 표적이 되었고 친구들은 저를 ‘연탄집 아들’이라며 갖가지 방법으로 놀려댔습니다.

“와, 애 손바닥 좀 보래이. 니 뭔데? 손이 와 곰발바닥이노?”

“맞나? 에이~ 드르브라. 니 양말 안 빨고 입제? 이거이거 시커먼 거, 좀 씻어라.”

“아들아~ 니네 앞으로 진규 옆으로 가지마래이. 시커먼 거 물든데이.”

그럴 때면 저는 “장난하나! 와~ 내 열반꾸로! 내 매일 다섯 번씩 세수하는 거 모리나!” 하며 시원하게 맞받아쳤지만 아이들은 제 말을 들

어주지 않았습시다. 그저 ‘더러운 아이, 안 씻고 다니는 아이’로 낙인찍어 괴롭히기에 바빴지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 가끔 대화도 나누고 하룻길도 같이 걸었던 진희가 점점 제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 겁니다. 한 번만 말을 걸어주면 소원이 없겠는데 그녀는 멀뚱멀뚱 지나가는 소 닭 쳐다보듯 저를 대할 뿐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속상했던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교실 뒤에서 들려오는 진희와 창식의 다정한 대화. 그게 저를 더 힘들게 만들었지요.

“창시아~ 니도 고무줄놀이 같이할래?”

“내도 끼주는기가? 알았데이~ 내 갈게.”

아빠가 얼음집을 하고 있는 창식은 진희와 함께 고무줄놀이도 하고 쉬는 시간에 ‘살구 받기’도 하고 도란도란 얘기도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와~ 창시아 이거 뭔데? 문방구에서 파는 그 창살모형 비행기가?”

“니 이거 처음 보제? 함 해봐라. 그냥 송 날리면 된데이~”

“와아~ 억썬로 신기하데이.”

제 용돈으로는 어림도 없을 문방구 비행기. 둘이 그걸 한 번씩 번갈아 날리면서 동네 골목길을 휘젓고 다니는 걸 보니 눈이 뒤집어지더라고요. 기회만 주어진다면 나도 돼지저금통을 털어서라도 그녀에게 온갖 장난감을 선물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놈의 연탄 배달, 속도 내기 어려운 오래된 리어카 때문에 도통 동네에 나가 놀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6학년이 다 끝나갈 무렵, 제 얼굴에는 슬금슬금 어둠이 드리우기 시작했어요. 그날도 저는 어떻게 하면 진희와 가까워질 수 있을까 머릿속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연탄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세상에 손가락 힘이 저도 모르게 풀렸는지 특 하는

소리와 함께 집게로 잡고 있던 연탄들이 고공낙하를 하며 박살이 난 게 아니겠습니까.

‘아~ 나는 이제 다 살았다. 엄마한테 불호령이 떨어지겠구나.’

연탄 한 개가 제 일주일 용돈이었던 시절. 어머니를 피해 줄행랑을 치려는데 등에서 짹 하는 소리와 함께 화끈거리는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이놈 자식! 어데다 정신을 팔고 앉았노? 이게 도대체 몇 개고? 네 개나 짜그라져뵈네. 아이고야~ 이 집 주인아줌마, 안 그래도 피탈이 많은데 니 우짤긴데? 아줌마 오기 전에 퍼뜩 안 치우나!”

나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데 억울하게 불호령을 들으니 눈시울이 일렁거리고 코가 시큰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제 속도 모르고 “안 그래도 니가 부실해 보이는가 배달 가는 데마다 젊은 사람 하나 쓰라고 야단인 거 모리나. 한 번만 더 그러면 니 저녁 밥 없데이. 알았나!”

무심한 우리 어머니. 아들이 삼촌기인지 사촌기인지는 통 관심도 없고 키 크고 덩치 좋다고 일만 부려 먹었지 제가 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지, 진희를 짹사랑하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순간 욱하고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고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지요.

“내도 이제 연탄 집 아들 안 할란다!”

“니가 연탄집 아들 안 하든 뭐할끼고? 창식이네 얼음집 아들 할끼가? 와~ 또 창식이가 뭐라 하드나? 누가 놀리나?”

“나는 맨날 배달하느라 꾸질하게 학교 가는데 창식은 스텐인리스 도시락통에 얼음 넣어서 애들 나눠주고 완전 인기짱이데이. 내 쪽팔린다. 엄마 밉데이!”

“이거 완전 헛똑똑이 아이가! 바보야, 니는 당당해야 한다. 우리가 연탄 안 주면 즈그가 우째 겨울을 날 낀데? 가슴 피라!”



당시에는 여름이 짧고 겨울이 무지 길었기에 어머니는 얼음집 창식 이네보다는 연탄을 피우는 우리 집이 더 '파워'가 있는 거라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도 같고 괜히 억울함이 가시는 것도 같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창식을 졸졸 따라다니는 진희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왔어요.

“니 세수하고 눈물 안 닦나!”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콧물 쿵, 눈물 쓱 닦은 밤. 그날은 하릴없이 슬프면서도 웬지 모르게 개운한 느낌으로 방바닥에 눕자마자 바로 꿀아떨어졌더랬죠.

그러던 어느 날 밤, 누가 우리 집 문을 부셔져라 크게 두드렸습니다.

“진규 엄마~ 진규 엄마~ 문 좀 열어봐라!”

거센 목소리의 주인공은 미장원집 진희네 아주머니였어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 일어나셨고 대문을 열고 마주한 아주머니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있었습니다.

“내가 몬산다. 우리 진희가 없어졌다. 밤 아홉 시가 되도록 온 동네를 뒤졌는데 우리 진희가 안 보인다. 우짜노. 내 우짜노.”

저와 어머니, 아주머니는 다시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진희를 찾아 다녔고 밤 열한 시가 되어서야 진희의 행방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진희는 창식이와 함께 개구리를 잡으러 다니다 산에서 길을 잃고 다른 동네 경찰서에 있었더라고요. 둘은 이미 서로 좋아하는 사이 쿵 하면 짝이 맞는 사이로 풋풋한 연애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이 가시나! 니 도랏나! 이 야밤에 남자애랑 개구리를 잡는다꼬? 니는 집에 가서 보제이!”

그날의 해프닝을 끝으로 저는 진희를 향한 마음을 깔끔하게 정리한 것은 물론 이전보다 더 열심히 연탄 배달 일을 다녔습니다.

“엄마, 집 앞에 내놓은 거 배달 다녀옵니데이~ 나가지 마이소.”

“아이고, 규야~ 니 안 가도 되는데. 엄마가 하께.”

“괜찮심더. 추우니까 안에 계시쇼.”

얼음집 하는 창식이네보다 사람들 엉덩이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우리 연탄집이 훨씬 멋있는 거라던 어머니의 말. 그 말을 되뇌며 더는 방황하지 않을 수 있었지요.

아직도 겨울이 되면 진희네 아주머니가 다급히 문을 두들기던 추운 저녁의 공기가 생각납니다. 진희야, 너는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살고 있냐? 가끔 궁금하다. 그리고 창식이, 야 임마! 사실 그때는 네가 너무 부러웠다.

사랑 사랑 사랑

그땐 미처 알지 못했지

김상표 | 전남 무안군

“뛰여, 우짤다? 버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디.”

“시방 내가 공개 열린 뛰자고 했자녀~ 학주한테 서울 구경 당하고 싶은겨? 얼릉 뛰어~”

때는 바야흐로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 아주 무더웠던 1976년의 여름. 당시 저는 세상 두려울 게 없는 열아홉 살 혈기 왕성한 남고생이었지만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걸 굳이 꼽으라면 두 개를 말하겠으니 하나는 우리 충북 음성고등학교의 ‘독사’ 바로 살벌한 학주 쌤이고 또 하나는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가차 없이 떠나버리는 등곳길 시외버스였습니다.

“헉~ 아저씨, 저희 왔어유. 아이고오~ 출발하면 안돼유!”

“이게 개인택시여~ 내가 오늘만 봐주는 겨. 얼릉 타.”

버스에 겨우겨우 올라 숨을 고를 새도 없이 저는 양팔을 들고 쿵쿵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땀 냄새가 내려나 싶어 몰래 겨드랑이를 훔치고 버스 창문을 거울삼아 흐트러진 머리 모양도 다시 정리했지요. 그러고는 힐끔 저기 대각선 쪽에 앉아 있는 상숙이를 바라봤습니다. 상숙이는 저보다 1년 후배로 충북 음성고 옆에 붙어있는 음성여고를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당시 저는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동네에서 통학하느라 우리 버스에는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다 합해도 열 명을 넘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 암묵적으로 각자 타는 자리가 정해져 있었고 서로 어느 학교에 다니는 몇 학년 누구인지도 모두 알고 있었지요.

일자로 자른 촌스러운 단발머리도 상숙이가 하면 어찌나 잘 어울리는지 그녀는 제 이상형에 딱 들어맞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상숙이 말여 오늘 뭘일 있는 거 아냐? 계속 실실 웃는다.”

“몰려~ 내가 독심술사여? 그걸 왜 나한테 캐물어싸~”

“이이~ 저 봐봐. 니를 보고 씨익 웃자네! 니 시방 나 몰래 상숙이한테 러브레터라도 보낸겨?”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상숙이를 보는데 아니 정말 그녀가 저를 보며 상긋 웃고 있는 겁니다.

“자도 알아챈겨. 니가 6개월 동안 뒤통수 뚫어져라 쳐다보는디 모를 리가 없잖여. 딱 말하. 고백 할겨 말겨?”

“더위 먹고 돌아버린겨. 인사도 안 해봤는디 고백을 어뜨케 혀.”

“진짜 러브레터라도 쓰면 되잖여. 니가 오늘 학교에서 써서 나한테 갖다주믄 내가 집 돌아갈 때 상숙이한테 대신 전해주면 돼.”

그날 둘 다 더위를 먹은 건지 아니면 어떤 계사라도 받은 건지 친구의 열정적인 꼬임에 저는 결국 넘어가고 말았고 학교 쉬는 시간 틈틈이 글을 몇 번이나 고쳐가며 짤막한 편지를 완성했습니다.

<상숙아, 안녕? 많이 놀랐지. 나, 너 옆 학교 다니는 3학년 상표라고 해. 우리 버스도 같이 타거든. 네가 맨날 앉는 자리 오른쪽 대각선 뒤에. 거기서 널 처음 본 순간부터 오랫동안 좋아해왔어. 괜찮으면 내일 모레 방과 후에 ‘당당 제과점’에서 보지 않을까? 학교 끝나자마자 거기서 기다릴게. 안녕!>

하루 종일 쥐고 있느라 꼬깃해진 편지는 제 손에서 친구의 손으로 친구의 손에서 다시 상숙이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일이 완벽하게 흘러가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긴장되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저와 친구는 평소처럼 버스에 올랐습니다. 상숙이도 평소처럼 늘 있던 그 자리에 앉아있더라고요. 그런데 분명 저를 보며 미소를 짓던 어제와는 달리 그녀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곳곳이 정면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저를 피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내 편지를 읽긴 했겠지? 얼굴이 궁금할 법도 한데 왜 안 돌아보는 거야. 눈이 마주치면 자연스럽게 말이라도 걸어보려 했는데.’

괜히 조급한 마음에 친구가 편지를 잘 전해준 건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고 저는 바로 앞자리에 앉은 친구를 불러냈습니다.

“니, 편지 잘 전해준 거 맞아? 상숙이가 오늘은 왜 뒤를 안 돌아본다?”

“시방, 나 의심하는겨? 상숙이가 오늘은 멀미가 나나 보지.”

“어제는 잘만 웃어줬는데. 그럼 재가 나를 왜 안 보는겨?”

바로 그때 옆에서 스스 하고 어두운 그림자가 나타나더니 머리 위로 서슬 퍼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저 여학생 얘기하는 거니? 너희 음성고 애들이지? 편지를 보냈다고? 이 자식들이 버스에서 여학생한테 이상한 수작질이나 하고 말이야. 그 여자애도 안 되겠네. 내가 학교 가서 편지 찾아내 봐?”



저는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되어버렸고 친구도 눈이 다섯 배는 커진 채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상속이가 다니는 여고의 교련 선생님이셨던 거예요. 그제야 모든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상속이가 쥐 죽은 듯이 앞만 보던 이유도 갑자기 등장한 선생님을 의식하느라 그런 거였구나. 내가 정말 눈치가 없었구나.

“선생님, 그게 아니라유. 편지를 주고받은 게 아니라 제가 상속이한테 일반적으로 고백 편지를 보냈구만유. 재는 암컷두 한 게 없슈. 혼이 나도 제가 나아지 상속이는 가만히만 있었다니까유.”

선생님은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자리로 뺄 돌아가셨고 그 정적과 무거운 공기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버스에서 보낸 40분의 시간이 정말 지옥 같았어요. 그날부터 세상에서 두려운 걸 굳이 꼽으라면 이제

우리 학교의 '독서' 학주 쌤 대신 음성여고의 교련 선생님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걱정되는 마음에 뜬눈으로 밤을 새운 뒤 다음 날 어제 하갯길에 소문으로는 교련 선생님이 상속이를 탈탈 털어 제가 쓴 고백 편지를 얻어냈다는데 이대로는 상속이가 제과점에 오지 않겠지 싶어 단념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학교가 끝나고 버스터미널에 우두커니 서 있으니 한 여학생이 쭈뼛쭈뼛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요.

“선배, 오늘 제과점 가봤슈?”

“제과점? 니가 그걸 어케 아는겨?”

“저도 선배랑 같은 버스 타는디 오늘 상속이 언니가 제과점에 간다는 소식을 들어가꼬 말해주러 왔슈.”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고 저는 눈썹이 휘날리도록 제과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니 거기에 상속이만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처음 보는 낯선 어른과 또 다른 여학생 두어 명이 같이 와있는 겁니다.

“네가 김상표구나? 여기 앉으렴.”

그분은 음성여고의 상담 선생님이셨고, 맞은편 자리에 앉아 들은 말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을 만큼 참 뻔한 이야기였어요.

“지금은 공부할 시기잖니. 한창 여학생이랑 친해지고 싶고 그럴 나이인 건 아는데 교제하게 둘 순 없어. 게다가 상속이는 너보다 한 살이나 어리고 말이야.”

“지가 졸업하고 만나는 건 괜찮다는 말이어유?”

“상속이도 성인이 되어야지. 지금은 너희 둘 다 학생이잖니? 공부에 집중하는 게 먼저라는 뜻이야.”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선생님의 설교를 듣고 있지나 반항심이 스멀스멀 올라오는데 그 순간 제 눈에 상속이가 보이더

라고요. 고개를 꼭 숙이고 불안한 듯 손톱을 뜯고 있던 상속이.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괜히 나 때문에 그녀가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어요. 순간 미안한 마음이 가득해진 저는 이제는 정말 상속이를 위해서라도 쥐 죽은 듯이 조용히 학교에 다니겠다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더 이상의 편지나 고백을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남몰래 쓰러린 눈물을 삼키며 제과점을 나온 그날 밤 모든 일이 일단락되는 듯했습니다.

“아이~ 자가 그 상표가 매달렸다는 상속이여? 얼마나 이쁘면 그랬을까 했는디 미인 맞네, 맞아~”

“야야, 상표야! 울 학교 화장실 벽에 니 이름 적혀 있는디 알아? 이상속 하트 김상표! 아주 도배 장관이여~”

“둘이 잘 어울린다~ 시외버스 공식 커플인거~”

선생님들이 나섰을 정도이니 학교에는 소문이 또 얼마나 났겠습니까. 여름이 지나 가을이 되고 어느새 겨울이 올 때까지 저와 상속이는 ‘시외버스 러브레터’ 사건의 주인공으로 학생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습니다. 사실 저야 먼저 고백하느라 생긴 해프닝이라 억울하지라도 않지 상속이는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들었을까요.

그해 12월 우연히 같은 정류장에 내린 상속이에게 “내가 많이 미안했다. 부담스러웠던 거 알아. 나는 이제 졸업하니까 잘 살고 애들이 놀러도 무시하면 되는걸” 이렇게 도망치듯 사과를 하긴 했지만 그게 얼마나 가닿았을지 확신이 없더라고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참 곱은 시대에 태어나 엄한 학교생활을 하느라 별일을 다 겪었구나 싶습니다. 여러 수모를 당하면서도 저를 원망하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던 상속이. 그녀는 어느 하늘 아래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겠지만 그래도 참으로 미안했다고 한 번 더 진심을 담아 길게 사과하고 싶었다고 꼭 전해주고 싶어요.

사랑 사랑 사랑

내 남자는 요리왕

이교은 | 서울 동작구

어느 날 휴대폰으로 SNS를 하다가 한 게시 글을 보게 됐습니다.
 제목은 '요리 못 하는 사람 특징'
 1번, 불 조절을 할 줄 모른다.
 2번, 중간에 간을 보지 않는다.
 3번, 식재료를 마음대로 바꾸거나 조리 순서를 지키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4번! 요리를 잘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없다.
 글을 읽는데 너무 찢리더라고요. 저는 삼교대 근무로 간호사 일을
 하느라 평소 요리는 즐겨하지 않고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거든요.
 그러다 건강이 나빠져 5년 만에 일을 쉬게 됐는데 제가 하는 밥이 맛
 이 없으니 시간이 아무리 남아도 요리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결국
 이렇게는 못 살겠다 기본기부터 제대로 한 번 배워보자 하는 생각에
 가까운 곳에 있는 요리 학원을 알아봤습니다.

“거기 요리 교실이죠? 제가 4주 단기 속성반을 신청하려는데요.”

“어머, 안 그래도 신청자가 없어서 반을 폐지해야 되나 했는데 잘됐네요. 다음 주 금요일 저녁 여섯 시 수업이고요. 들어가기 전에 데스크에서 먼저 결제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자가 없더니 혹시 일대일 수업이 되려나 하고 조금 걱정이었지만 그래도 좋더라고요. 새로운 걸 배울 생각에 마음은 들뜨기 시작했고 저는 그렇게 일주일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대망의 요리 교실 첫날,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안경 쓴 여자분 한 명 그리고 저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남자분 한 명이 계셨습니다.

“이고은 님, 반가워요. 저기 남자 수강생분 옆에 앉아주세요.”

여자분은 요리 선생님, 남자분은 저와 같은 수강생으로 1대2로 진행되는 수업이었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자립니까. 불타는 금요일에 이렇게 불 앞에서 요리 배워겠다고 마음먹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을 고든 램지, 백종원까지는 아니어도 수업에서 배운 요리만큼은 스스로 맛나게 해 드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선생님은 열정이 넘쳐 보이셨고, 옆에 앉아 계신 남자분도 인상이 선하니 좋아 보이셨어요. 수업을 신청하길 잘했다는 생각에 미소를 짓고 남자분을 쳐다보니 그분도 같은 생각인지 웃으며 목례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첫 번째로 배울 요리는 바로 미역국. 참기름에 소고기 양지 부위를 달달 볶아서 물을 붓고 미역을 넣어 끓이는데 조리법이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요.

“선생님, 물이 슬슬 끓는데 이제 뭘 하면 되나요?”

“자, 그럼 전복을 손질해서 미역국에 넣어줄 거예요. 아참! 전복 껍

데기는 날카로우니까 베이지 않게 조심해야….”

“아야!”

“괜찮으세요? 다치셨어요?”

“헉! 피 피! 으아아아앙~ 저 피나요.”

아주 약간 흐르는 피를 보며 패닉이 된 저와 옆에서 어쩔 줄 모르고 첫 만남부터 제 손을 덥석 잡은 남자분. 그리고 이런 일을 처음 겪은 게 아니었는지 능숙하게 냅미를 올려놓은 불을 끄고 연고를 챙기러 나가신 선생님까지. 순식간에 요리 교실은 ‘응급구조 현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고은 님, 다친 손가락으로는 요리하시면 안 돼요. 오늘은 태규 님이 나머지 마무리해 주시고 고은 님은 옆에서 지켜만 봐주세요.”

응급처치를 끝내고 정신을 차려보니 호들갑을 떨 게 민망할 만큼 남자분은 아주 침착하게 남은 전복들을 손질하고 계시더라고요.

“태규 님, 죄송해요. 제가 도와드려야 하는데 혼자 다 하시니까 힘드시죠?”

“아유, 괜찮습니다. 이번 기회에 스파르타로 배우고 좋죠. 그나저나 여기 보이세요? 전복에 눈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헉, 그러네요. 우와, 신기하다.”

저 때문에 수업이 길어져 아니꼬울 법도 한데 상냥하게 말해주는 그 사람을 보며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좋은 사람이구나 싶고 더 친해지고 싶다고도 생각했어요. 그날 만든 미역국은 국간장을 너무 많이 넣어버린 바람에 짜디짠 바닷물 같았지만 그래도 정말 재밌었습니다. 수업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얼른 다음 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요리왕이 되는 길은 참 멀고도 험했습니다.

성큼 다가온 두 번째 수업 날. 이번에는 주꾸미볶음을 만드는데 제

가 주꾸미 눈을 떼어내려다가 먹물주머니를 잘못 건드려서 까만 물이 사방에 다 튀어버렸습니다.

“고은 님, 아이고~ 까맣다고 다 눈이 아니에요. 그건 먹물주머니. 건들면 안 돼요.”

연신 죄송하다고 말하며 더러워진 고무장갑을 씻어내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도 잘하고 싶은데 왜 마음처럼 안 되는 걸까? 병원에서 일할 땐 손도 빠르고 알아서 척척이라고 칭찬도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태규 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고은 님, 괜찮아요. 저희 어머니가 요리를 진짜 잘하시는데 어머니도 주꾸미 요리하실 때 먹물이랑 내장을 실수로 터뜨려서 맛이 텁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이게 보기보다 힘든 요리 가봐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완성한 요리를 맛볼 때 참깨 소스를 접시에 담아서 슬그머니 내미는 겁니다.

“매운 거 못 드신다고 하셨죠? 제가 아까 양념을 많이 넣어서. 이거라도 찍어서 드셔보세요.”

그 순간 ‘아, 이 남자도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확신이 들면서 마음이 탁 놓였습니다. 아까 고무장갑을 씻을 때만 해도 다음 주 수업은 아프다 하고 설까 그냥 환불받고 그만둘까 생각했는데 이제야 숨이 좀 쉬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다음 수업에도 출석도장을 찍는 데 성공했습니다.

세 번째로 만든 음식은 돼지고기 탕수육. 다 튀겨진 돼지고기를 옆에 두고 채소를 볶고 물을 섞은 뒤 센불에 녹말 물을 서서히 넣어서 저어야 했죠.

“아까 선생님이 녹말 물은 조금씩 천천히 넣으라고 하셨는데 이렇

게 확 부어버리면 안될 걸요?”

그의 말을 듣고 보니 아뵘싸! 정말 소스가 다 떡져서 물기가 하나도 없는 탕수육이 되어버렸더라고요.

“고은 님, 이게 무슨 탕수육이에요. 강정이지, 강정. 아까 마늘도 누르지 말고 ‘잡핑’을 하라 했는데 다 으깨버리질 않나. 아휴~ 이렇게 기본을 안 지키시면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없어요.”

저의 얼렁뚱땅 요리에 지쳐버린 선생님. 이제는 ‘열정쌤’이 아닌 ‘잔소리쌤’이 되어 우다다 말씀을 쏟아내셨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옆에서 은근슬쩍 제 편을 들어주는 그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선생님, 마늘은 제가 힘줘서 썰다가 실수로 으깨버린 거예요. 칼을 똑바로 들어서 써는 게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쌤이 한 번만 봐주세요.”

덕분에 저는 눈치 볼 필요 없이 마음껏 시행착오를 거칠 수 있었고 선생님도 쿵짝이 잘 맞는 저희가 제법 웃겼는지 더 이상 잔소리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의 요리 교실은 어느덧 마지막 수업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수제 햄버거를 만들어볼 거예요. 햄버거는 고기에 있는 공기를 잘 빼줘야 맛이 좋거든요. 온 힘을 다해서 팍팍 치대주세요.”

“태규 님, 좀 도와주실래요? 제가 일하면서 손목이 다 망가져서 힘을 좀만 줘도 아파서요.”

“당연하죠. 그럼, 당근하고 양파만 잘 다져주세요. 소스는 제가 나중에 만들게요.”

저희는 마치 한 팀처럼 손발을 척척 맞춰 처음으로 아무런 사고 없이 요리를 완성해 냈습니다. 뿌듯한 마음에 예쁜 접시에 담아서 인증

샷도 찍고 특제소스를 뿌려서 한입 맛보려는 순간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아쉬워요. 뒤에 약속 없으시면 제가 좋아하는 와인바에 같이 가실래요?”

사실 그리 놀랍지는 않았어요. 그가 오늘은 무조건 번호를 물어보거나 데이트 신청을 할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와인바에 갔고 거기서 그가 은행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은행원이라니 너무 잘 어울려요. 요리하실 때도 보니까 꼼꼼하고 항상 차분하셔서 늘 부러웠거든요.”

“고은 씨는 간호사 일을 하셨다고요? 되게 놀랐어요. 요리하실 때는 조금~”

“제가 조금 덤벙뚱요. 다시마도 한 개 넣으라고 하면 세 개씩 넣고 멸치도 열 개 넣으라고 하면 막 스무 개 넣고, 저는 그 조그만 게 그렇게 불어나는지 몰랐거든요. 참 요리가 신기해요.”

“저, 좀 갑작스럽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고은 씨랑 더 친해지고 싶어서요. 매주 이 시간에 같이 저녁 드시면 어때요?”

그의 고백을 계기로 그렇게 저희는 매주 만나 맛집 탐험을 하고 매주 한 잔하고 주말에는 영화도 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레 연인이 되어 제가 서울에 있는 병원에 이력서를 냈을 때 그 사람도 서울 본점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는 저와 떨어지지 않으려는 그를 볼 때마다 이 사람이 해주는 요리를 평생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약 1년 반의 연애를 끝으로 결혼하게 되었고 저는 이제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요리가 너무 어렵고 아무리 해도 늘지 않는다면 요리 잘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방법이라고요.

사랑 사랑 사랑

뭐든 고쳐주는 남자

남소현 | 제주시 애월읍

“어, 이상하다. 휴대폰이 왜이래? 엄마, 이거 좀 봐봐요. 내 눈이 이상한 거 아니지?”

“왜 그래. 어마마~ 연락처가 텅 비어있네.”

“문자랑 전화 기록도 다 사라졌어. 나 해킹 당했나?”

때는 2016년 11월. 저는 당시 다니던 회사에서 우수사원으로 뽑혀 방콕으로 연수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말이 좋아 연수지 맛있는 음식도 먹고 방콕 구경을 실컷 하고 왔는데요.

휴대폰도 너무 열심히 놀았던 걸까요. 아니면 더운 나라에 있다가 초겨울 대한민국의 칼바람을 맞고 잠시 기절해버린 걸까요.

토요일 집에 도착해 방전되어 있던 휴대폰을 켜는데 연락처 목록은 물론이고 제 문자, 전화 기록까지 싹 사라져 있는 겁니다.

“너는 영업한다는 애가 휴대폰이 고장 나면 어떡하니. 얼른 수리센

터 가봐. 월요일 출근 전엔 고쳐야 될 거 아냐.”

그제야 번뜩 정신을 차리고 근처 수리센터를 알아보는데 주말이라도들 영업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입이 바짝 마르고 다리가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깨톡. 그거부터 확인해봐. 대화 내용은 그대로 있는 거야?”

“가만 보자. 제일 최근 대화가 2014년? 하~ 내가 백업을 너무 옛날에 해놨나 봐. 진짜 큰일났어. 어떡해.”

“아니, 그걸 나한테 어떡하냐고 물으면 뭐 답이 나와? 친구 목록 뒤져봐. 도움 받을 만한 애 없어? 공대 나온 애라든가, 뭐 기계 고치는 회사 다니는 애 없냐구.”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메신저 앱의 친구 목록을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애는 퇴사하고 베이커리 배우는 애. 애는 작년에 싸우고 떨어져서 연락 안 한지 1년이 넘는 애. 내가 인생을 헛살았나 하는 생각에 단전 깊은 곳에서부터 한숨이 나오려던 그때,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지만 아주 익숙한 이름이 보였습니다.

“박동선? 아, 맞다. 애가 기계 만지는 걸 좋아했지.”

그 친구는 저랑 05학번으로 같은 대학을 나온 남자애였어요. 저는 미술교육과, 동선이는 법학과였고, 겹지인이 있어 서로 얼굴만 아는 사이였죠.

그냥 캠퍼스에서 만나면 인사하고 서로 생일이나 명절 때마다 간단히 안부 연락만 나누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대학 시절부터 기계 덕후, 기계 마니아였다는 사실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 친구의 프로필을 눌러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동선아, 안녕? 잘지내? 정말 미안한데 내가 부탁이 있어서. 돈 빌려달라거나 뭐 결혼한다는 건 아니고->

구구절절 제 사정을 적은 메시지를 전송한지 십여 분이 지났을까요. 몇 시간 후에야 답이 올 거라는 제 예상과 다르게 동선에게서 바로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응, 오랜만이다. 노트북은 멀쩡한 거지? 노트북이랑 휴대폰 연결할 수 있는 잭 챙겨서 여기로 전화해. 공일공 일이삼사 오육칠팔>

저는 통화를 하면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나씩 임무를 완수해갔어요. 그런데 뒤로 갈수록 조작법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하겠다 하니 동선이는 무려 ‘컴퓨터 원격접속’을 한 다음 본인이 알아서 다 해결해줬습니다.

“자, 이제 됐어. 휴대폰, 노트북이랑 연결 해제 한 다음에 한 번 꺾다 쳐봐.”

“어어, 잠깐만~ 대박! 진짜 연락처랑 다 원래대로 돌아왔네. 동선아, 너무 고마워.”

“별 거 아니야. 다음부터는 백업도 주기적으로 해놔야 해.”

“응, 그렇게. 근데 있잖아. 내가 주말에 시간 뺏은 것 같아서 미안해서 그런데 만나서 밥이라도 먹을래? 내가 맛있는 걸로 거하게 살게.”

“밥? 사준다면 고맙기야 한데. 그럼 그럴까?”

저는 빚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 꼭 뭐라도 보답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리저리 만날 수 있는 날을 맞춰보는데 아무래도 제가 영업직이다 보니 확실하게 설 수 있는 날로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동선아! 혹시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어때? 내가 저때는 무조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그래. 나는 괜찮긴 한데 너는 저 날 선약 없는 거야? 그럼 그때 만나고~”

그렇게 우리는 거의 6년 만에 크리스마스 날 뜻밖의 식사를 하게 되었죠. 대망의 크리스마스 날 가게에서는 캐롤이 울려 퍼지고 지나 다니는 모든 사람의 얼굴이 행복해 보이는데 저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딱 저만 혼자 정류장 앞에 서서 오들오들 떨고 있었어요.

“아니, 애는 여섯 시에 만나자면서 왜 이렇게 안 와? 혹시 내가 주말에 괴롭혔다고 복수하나?”

어디쯤이냐고 연락을 해야 되나 5분만 더 기다려볼까 고민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동선이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코가 잔뜩 빨개져서 거의 루돌프가 되어버린 모습이었죠. 저는 애가 미안해서 울면서 왔나 싶었어요.

“미안해. 많이 기다렸지.”

“아니야, 괜찮아. 근데 늦으면 늦는다고 미리 말 좀 해주지.”

“아니, 사실 내가 어제 저녁에 지갑을 잃어버려서 그거 찾겠다고 집을 싹 뒤졌는데 결국 못 찾아서. 여기까지 걸어왔어.”

“어? 여기까지 걸어왔다고? 아 그럼 미리 말을 하지. 내가 너네 집쪽으로 가도 됐잖아.”

“어떻게 그래. 일단 빨리 들어가자. 춥지? 진짜 미안.”

늦은 이유가 어이없기도 하고 여기까지 걸어왔더니 당황스럽기도 해서 개한테 화를 못 내겠더라고요.

그렇게 컴퓨터를 착착 조작하고 망가졌던 휴대폰도 수리할 줄 아는 애가 이렇게 허당이라니 괜히 웃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랑 동선이는 근처 웨이팅이 없는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어차피 제가 사기로 한 날이니 동선이가 지갑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먹고 싶은 거 다 골라. 내가 쏘다!”

호기롭게 메뉴를 주문하고 나름 만족스러운 식사를 마쳤는데 동선

이가 계속 놀고 싶어 하는 눈치더라고요.

“뒤에 약속 없으면 카페도 갈래?”

저는 속으로 ‘아니, 내가 밥 샀으면 됐지. 커피까지 사라고?’ 싶었지만 차마 그의 제안을 거절하진 못했어요. 저 만나겠다고 한 시간이나 걸어왔는데 밥만 먹고 헤어지는 건 너무 매정한 것 같았거든요.

“그래 그러자. 커피도 내가 살게.”

그렇게 커피도 한 잔씩 마시고 슬슬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그가 한 번 더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 있잖아. 그래도 크리스마스 날인데 영화도 볼래?”

“어, 영화? 지금 예매하려면 자리가 없을 걸?”

“내가 아까 찾아봤는데 공포영화 자리가 남아있더라고요. 나 통신사 할인쿠폰 있어서 내가 예매할게.”

그래 이번에는 그가 사겠다고 하니 나쁠 거 없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동네의 작은 영화관으로 들어갔고 둘이 붙어 앉아 영화를 보는데 주인공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장면에서 “오아, 깜짝이야!” 동선이가 엄청 놀랐는지 제 손을 덥석 잡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영화가 끝날 때까지 한 시간 넘게 제 손을 안 놔주더라고요.

저는 조금 당황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영화가 끝나고 나서는 지갑을 잃어버린 그를 위해 동선이 집 앞까지 버스를 타고 데려다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상하고도 신기한 만남이 마무리되는 줄 알았어요. 동선이는 그날 이후 저에게 매일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밥 먹었어? 여기 맛집이라는데 다음에 같이 갈래? 나 지갑 찾았거든.>

<소현아 뭐해? 우리 지난번에 간 맛집에서 내가 찍어준 사진 있잖아 그거 잃어버리기 싫으면 지금 백업해놔.>

<소현소현~ 오늘도 야근하는 거야? 끝나고 회사 근처에서 치맥 콜?>
 잦아진 연락만큼이나 저희는 만남을 이어가며 눈에 띄게 가까워지
 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언제부터 1일이었던 거야?”

“음~ 크리스마스 때 데이트한 날부터?”

“에엥? 그때는 처음 만나서 밥 먹은 게 다였잖아. 와~ 설마 영화관
 에서 손잡은 게 고백이었던 건 아니지?”

“나는 나름 호감 표시 한 거였다고. 그때 너도 끝까지 손 안 빼고
 같이 잡고 있었잖아.”

동선은 2016년 12월부터 지금까지 한결 같이 제 옆에 있어줬어요.
 제가 건강이 안 좋아 갑자기 수술하게 되었을 때도 그는 원래 준비하
 던 공무원 시험을 그만두고 제가 살던 제주도로 내려와 저를 성심껏
 간호해주었어요.

“소현아, 아까 병문안 온 남자에 싹싹하니 애가 괜찮더라. 그냥 친구
 인 거야? 개는 널 좋아하는 것 같던데.”

저와 동선이 만나고 있다는 걸 아직 모르시던 엄마도 애가 괜찮다
 며 개랑 잘해보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죠.

저는 그날로 그와 함께하는 미래를 진지하게 그려보기 시작했고
 2023년 1월 28일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고 지금은 곧 결혼 2주년을 앞
 두고 있는 풋풋한 신혼부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동선은 지금도 집에서 물건들이 고장 나면 팔을 걷어붙이고 푹푹
 푹푹 잘도 고쳐줘요. 또 고된 회사생활로 가끔 고장 나는 제 마음까
 지 어루만져주니 정말 ‘뭉든 고쳐주는 남자’지요.

동선에게 앞으로도 우리 잘 살아보자고 서로를 도우면서 힘내서
 지내보자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사랑한다고 꼭 말해주고 싶어요.

여자는 모른다

백마 타기 싫은 왕자

애청자

남자인 나는 연애에 있어서 억울함을 느낄 때가 많다. 사람들은 흔히 남자가 연애를 리드하고 상대를 보호하며 항상 든든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 역시 그런 기대에 부응하듯 언제나 강하고 리더십 있는 남자의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다. 강해 보이는 모습 뒤로 말 못 하는 억울한 감정들을 숨기기 바빴고 그럴수록 내 어깨는 점점 무거워졌다. 연인의 끝없는 기대에 맞추기 위해 애쓰다 보니 마치 내가 무거운 갑옷을 입고 싸워야 하는 전사처럼 느껴졌고 가끔은 나도 기대고 싶다는 말을 더더욱 할 수가 없었다.

매번 데이트 코스를 계획하고 멋진 레스토랑을 찾고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해야 했다. 여자친구를 위한 최선의 데이트가 무엇일지, 무엇을 해줘야 나라는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다고 느낄지 늘 고민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어느 날 여자친구가 말했다.

“넌 정말 다 잘 챙겨주지만 가끔은 너무 과해. 난 좀 더 자연스럽게 편한 게 좋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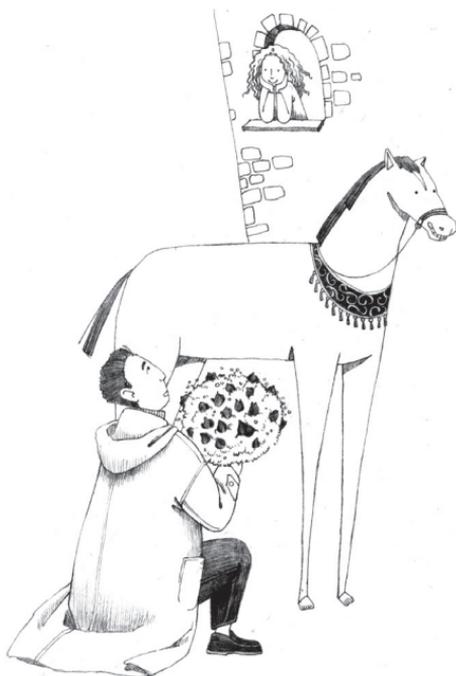
순간 내 마음속에서 활화산처럼 솟구치던 섭섭함과 억울함.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지 못한 속상함과 그녀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부끄러움과 미안함.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나를 휘감았다. 나는 항상 여자친구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고 그녀가 좋아할 만한 것을 미리 캐치해서 준비하려 노력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녀에게는 부담이었다니! 솔직히 나는 여자친구가 가끔은 나를 리드해주시기를 바랬다. 나 혼자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끌어가는 것에 지칠 때가 많았으나 차마 말하지 못했다. 그건 남자답지 못한 거니까.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은근하게 말하면서 나를 길들였으니까.

“오늘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이미 계산 다 했어. 집에 데려다줄 게 가자.”

나도 이런 말을 들으며 데이트하고 싶다는 걸 여자들은 알까?

특히 나는 요즘 프러포즈를 남자가 해야 한다는 기대가 너무 큰 부담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평생을 약속하는 중요한 순간을 상대방에게 서프라이즈로 선물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생각보다 너무 크다.

“너는 내 마음을 왜 이렇게 몰라?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러는지 몰라?” 싸울 때마다 여자친구가 자주 하는 이런 말들이 또 그녀를 실망시킬까봐 나를 더욱 불안하게 한다. 그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실망시키면 어찌지?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미는 순간조차 그녀의 표정이 어떤지 눈치를 봐야 하는 남자의 강박을 그녀는 알기나 할까? 프러포즈가 내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상대의 기대를 온전히 만족시키는 시험처럼 느껴지고 이런 걱정과 불안들 때문에 나는 내가 사랑하면서 느끼는 솔직한 감정들을 표현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



는 기분이다.

물론 나도 안다. 이제는 남녀 사이도 사람들 생각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걸. 그래서 나도 용기 내어 이 사연을 쓴다. 나도 여자친구가 내 억울함과 부담감을 이해해 주고, 내가 힘들 때 먼저 손도 내밀어 주고, 리드도 해주고, 내가 기대서 쉴 수 있게 든든한 버팀목도 되어 주길! 기대한다고. 그리고 남자인 내가 그걸 바라는 게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나 스스로에게도 말해주고 싶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고 이끌어주는 것. 그 과정에서 서로 편안해지고 더 단단해지는 관계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 아닐까? 연애가 항상 완벽할 순 없겠지만 그녀와 함께 그런 사랑과 행복을 만들어가고 싶다.



국물 한 사발

양희은 | 여성시대 진행자



엄마 떠나신 지 1년이 되었다. 엄마의 증손까지 다 모여 11시에 우리 집에서 출발해서 엄마 계신 곳까지 차 3대로 떠났다. 인사드리고 와서 작고 아담한 맛집을 통째 빌려 우리 식구끼리 밥을 먹었다. 집에서 차리는 게 제일 좋은 건 알지만, 어깨와 무릎이 아파서 무리하지 않기로 했다. 1월 1일 각자 선 자리에서 사위, 며느리 노릇 단단히 한 후에 번잡하지 않은 엄마의 기일에 날을 잡아서 모였다.

아직도 엄마 방을 그대로 두어서 그 방에서 강아지랑 누워있기도 하고, 텔레비전도 보고, 이런저런 책도 읽고, 외국어 공부도 하는데 서랍 속을 가끔 정리해서 막내에게 엄마 생각하며 쓰라고 주기도 한다. 막내는 모자만 두어 개 달라고 했는데 엄마의 실내복이며 쓰시던 가방, 스웨터도 챙겨주었다. 엄마 냄새가 남아있어 은은하고 향긋하다.

결혼한 후에도 늘 엄마와 함께 살았다. 뉴욕에서도. 엄마는 호기심투성이인 데다 향학열에 불타 가보고 싶은 곳도 많으

서서 당시 약간의 주부우울증을 앓았던 나는 그게 성가서 짜증도 났었다. 아이 챙기듯이 모시고 다녀야 했지만 소속도 없고 가까운 친구도 없어 난감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미미, 보보랑 산책을 하는데 동양 사람이 개 두 마리와 산책 중이라 서로 말을 붙였고 어쩔 수 없는 한국 사람끼리라 서로 집을 오가며 가까워졌다. 아이를 기다리는 새댁인 혜선 씨! 전공이 미술이라 엄마를 만나더니만 이런저런 전시회며 동네 지자체에서 여는 무료 강좌며 도서관 등지를 모시고 다녔다. 두 사람은 합이 잘 맞았다. 어린 날 유학 온 혜선 씨는 아는 것도 많아서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됐다.

내가 다시 서울로 돌아왔을 때, 혜선 씨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이런저런 얘길 나누다가 “그때 주부우울증이셨지요?” 묻기에 그랬었던 것 같다고 답하면서 “내가 지금 우울하구나?” 했더니 독박육아에 아이들이 어려서 버겁고 힘들다 했었다. 더더더 멋진 곳에 집을 사서 이사를 갔지만 두 남매가 고만고만하니 힘들겠지. 연말이면 늘 예쁜 달력과 카드를 보내더니만 요 몇 해째 연락이 없는 그녀를 생각했다.

뉴욕서 만난 나의 유일한 친구. 호기심으로 다가오는 시선들이 싫었는데 혜선 씨는 나이가 어렸지만 진중하고 편하게

통하는 사이였다. 엄마가 가신 걸 알면 슬퍼할 게다.

요즈음 비로소 독립했다는 생각이 든다. 어른이 된 그런 기분? 그렇지 않지만 아직도 마음속에선 떠나보내지 못한 채 나날이 많이 생각한다. 엄마의 인생을. 아이 셋 딸린 서른다섯의 어린 여자가 헤쳐 나온 세상과 하루하루 부딪히는 일상사, 어깨에 짊어진 삶의 무게. ‘먹고 사는 일이 우선이라 너희 셋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게 미안하다’ 하셨다.

2주간의 휴가를 잘 보내고 돌아오니 연말이고 금세 또 2025년이 시작되었다. 객지에서 듣는 여성시대가 새삼스러웠다. 짐을 싸면서 가장 소중하게 챙겼던 물건은 머리 묶는 고무줄과 머리핀, 손톱깎이, 가위, 칼이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차가운 칼바람 속에서 문을 연 식당은 없고 무릎은 아프고 앉아 쉬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은데 오후 네 시에 겨우 한 곳 찾아 들어가 몸을 녹이며 먹은 뜨끈한 국물 한 사발이 눈물 나게 반가웠다.

춥고 배고파 봐야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구나. 앉아 설 의자, 따뜻한 실내, 더운 국물, 그거면 될 일이었구나.



여성시대 50주년

김일중 | 여성시대 진행자



자주 볼 수 있는 영화의 한 장면. 공중에서 도시 전체를 보여주다가 주인공이 운전하는 차 안으로 우리의 시선을 이끈다. 그러는 동안 오디오는 라디오를 진행하는 디제이의 음성으로 가득하다. 혹은 영화 속 등장인물 개개인이 위치한 장소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춘다. 집안에서, 일터에서, 운동 중에, 이동 중에 하나의 라디오 채널에 귀를 기울인다. 이렇듯 라디오는 동시간을 살아가는 인물들을 묘사하기 위한 장치로 자주 쓰인다. 또한 늘 같은 시간 같은 시그널 음악으로 시작하는 라디오는 생활 패턴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특정 라디오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쯤 출근길에 오르거나, 식구들 밥을 차리거나, 혹은 잠깐의 커피타임이 되는 것이다. 라디오는 우리 일상에 스며들어 함께 움직이는 한 부분이다.

그런 라디오 프로그램 중 여성시대가 올해 50주년을 맞이한다. 반백 년, 반세기. 실로 엄청난 시간이다. 어렸을 적부터 라디오를 접해온 청취자라면 ‘라라랄라 라라라라 랄라라’로 시작하는 여성시대의 시작 멜로디를 모르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나에게도 가장 오래된 여성시대의 기억은 고등학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방학이나 주말에 집에

서 엄마가 늦은 아침을 준비하는 부엌에선 늘 여성시대가 흘러나왔다. 올 엄마가 애청하는 라디오. 그리곤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어 여성시대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은 버스나 택시였다. 내가 집 대에서 사십 대가 되는 동안에도 여성시대는 늘 어디선가 흘러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요즘도 가끔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를 방송 중에 말하면서도 신기하다. 내가 이 방송의 진행자라니 참. 대단히 운이 좋은 경우라고 생각한다. 이제 올 5월이면 진행한 지 겨우 두 해가 되는 주제에 프로그램 50주년을 함께 맞이하게 되다니 말이다. 내 옆지기를 보면서 속으로 한 번 더 흠칫 놀라게 된다. ‘이분은 그중에 절반인 25년 동안을 진행해 오신 거야!’

고작 2년이 채 안 되는 시간이지만 여성시대를 진행해 오면서 늘 생각한다. 여성시대야말로 나와 우리의 인생이 담겨있는 라디오라고. 인생 선후배님들의 다양한 기쁜 일, 슬픈 일, 말도 안 되는 일. 그로 인한 행복, 근심, 걱정, 즐거움들을 매일매일 간접 경험하고 있다. 기쁘고 행복한 일에 함께 즐거워하는 건 참 기분도 좋다. 하지만 아프거나 슬픈 이야기를 전하고 어떤 공감과 위로를 건네야 하는지는 여전히 어렵고 힘들다. 그때마다 양희은 ‘선생님’께 많이 기대고 또 배운다. 선생님은 여성시대의 기둥이자 정신적 지주이시니까.

2025년의 여성시대는 우리 피디와 작가진들의 번뜩이는 기획하에 매일, 매주, 매달이 특집처럼 꾸며질 것이다. 그리고 역사나 50년 동안 그려온 것처럼 당당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중심일 것이다. 나는 그럼 때론 아주 맛나고 신나게 어떨 땐 눈물을 적시며 손가락을 들 것이다. 아 설렌다!



IBK기업은행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로그인도 얼굴 인식으로 되면 편할 텐데

바쁘는데
은행까지
가야 하나?

나한테 딱 맞는 금융 상품은 있을까?

계좌 개설도 더 쉽고 간편해지면 좋겠다

인증 한번으로 사업장들을 다 관리할 수 없나?

사장님의 시간을 아껴드립니다



은행 방문 없이, 복잡한 절차 없이 쉽고 빠르게,
새로워진 기업스마트뱅킹이
대한민국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찾아갑니다.

새로워진
기업스마트뱅킹

i-ONE
기업



인증서 하나로
여러 사업장 동시 관리



생체·패턴인증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직관적 UI/UX와 스마트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72688(2024.12.05) 유송기간(2025.12.04)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금융소외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항에 따라 IBK 기업은행으로부터 중등이 상등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실정을 이해한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IBK 고객센터(☎1566-2568)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BK 기업은행

N KOREA

Made in Korea.

MADE IN KOP

ARD
EN

Unit:g/oz

Display:LCD

MADE IN KO

EINKOREA

MADE IN KOREA

Made in Korea.
혁신의 상징이 된다.

대한민국의 멈추지 않는
위대한 기업, **그 옆에**

 IBK 기업은행

MADE IN KOREA

MADE IN KOREA

MADE IN K

MADE IN KOREA

MADE IN KOREA

MADE

6JJ07701